

성도의 빛 4
1973



영감의 메시지

데오도르 엠 버튼 장로

요즈음의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며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을 갖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참다운 예언자로부터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런 날은 왔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옳습니까?” 라는 아주 순수한 질문을 갖고 팔마이리 근처의 숲을 찾은 소년 요셉 스미스의 단순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엮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로 곧 방금 시작될 새로운 경륜의 시대에 관여하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셉의 질문에 답하여 줄 예언자가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는 방법밖에는 그 질문에 대답하여 줄 분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드린 단순한 기도에 답하여 두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가르키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이서 17) 그 때의 요셉을 일깨워 주시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알 수 있는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여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는 요셉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권능을 허락 받은 교회가 이 땅 위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합당한 준비와 신권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요셉은 고대의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 이 세대에 인간을 가르치며 축복할 살아있는 첫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살아계신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이며 왕이시며 주님이라는 간증을 엄숙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날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온 나라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멜기세덱 신권이 능력과 위엄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와 예언자가 계시다는 점을 간증하는 바입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전해 드렸습니다.

아멘.

순서

리그랜드 리차즈	2	참다운 교회
제이난 페인	6	루시 맥 스미스
브르스 알 맥콩키	14	예수님에 대한 간증
데오도르 엠 버튼	16	구원과 승영
조셉 앤더슨	18	인간의 영원한 지평선
버나딘 비티	21	지도와 낯선 친구
매리 엘 러스크	24	룻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26	친구가 친구에게
	28	심심풀이
로버트 토마스	29	네가 지닌 것을 활용하라
	30	질의 응답
마가레트 엘리스	34	물은 바퀴를 돌린다
버트 시 폴린	37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르침
레온 알 하트선	39	데이비드 오 맥케이 : 영혼의 가치
	46	내외 소식

성도키벗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3년 4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93호
 편집겸 발행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1973년 4월호

성도키벗

제9권 제4호

- 대관장단
 - 해롤드 비 리
 - 앤 앨든 태너
 - 매리온 지 롭니
 - 십이사도
 - 스펜서 더블류 김볼
 - 에즈라 태프트 벤슨
 - 마크 이 피터슨
 -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 리그랜드 리차즈
 - 휴 비 브라운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고든 비 힝크리
 - 토마스 에스 몬슨
 - 보이드 케이 패커
 - 마빈 제이 애쉬튼
 - 브루스 알 맥콩키
- 고문 위원회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교내 연락 책임자
 존 이 카, 번역 및 배부 책임자
 도일 앨 그린 교회 잡지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교육 자료 책임자

정 가: 1권 100 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800 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이달의 잡지

우리는 이달에 1830년 4월 6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날을 기념하게 된다. 여섯 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3백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조직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1960년부터 1972년까지의 12년 동안에 교회 회원의 수는 평균 94퍼센트의 증가를 보였고, 이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약 25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참다운 교회로부터의 배도, 필연적인 회복 및 성장에 관한 예언은 친구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다. 제일 처음 기사는 이들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다룬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의 설교이다.

특히 이번호에 "위대한 신앙의 여인: 루시 맥 스미스"란 기사를 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 교회 역사의 일면이요, 참으로 훌륭한 여성인 동시에 예언자의 모친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녀의 눈을 통하여 회복의 과정이 펼쳐 진다. 예언자의 어린 시절의 가정 생활이 나와 있다.

이외에도 브루스 알 맥콩키, 데오돌 엠 버튼, 조셀 앤더슨 장로의 신앙을 돈독히 하여 준 감동적인 설교가 실려 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라" "물은 풍차를 돌리고"는 누구에게나 유익한 것이지만 특히 청소년에게는 한층 값진 기사가 될 것이다.

<표지 설명>

이번 호 표지에는 축복사 조셀 스미스 일세의 부인이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일세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의 그림을 실었다. 45~50세 사이의 어머니 스미스와 구모라 언덕을 찾아가던 요셀 이세를 기다리고 있는 스미스 가족을 묘사한 그림이다. 그림은 교회에서 성인을 위하여 발간하는 엔사인지의 스탭 화가인 하워드 포스트가 그린 것이다.

참다운 교회

전반적인 배도와 회복에 관한 예언의 고찰

조 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지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퍼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는 이어 “복음은 퍼져 온 땅을 가득히 채울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복음이 퍼져 온 땅을 채워야 한다면 말일성도로서의 우리가 이 위업에서 말아야 할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회원이 아닌 이웃과 친구에게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보다 더 훌륭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는 당시의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마 5:16 참조)



리글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롬 10:14-15)

그러므로 주님께서 경륜의 시대에 이 땅에 진리를 회복하시면서 보여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 증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림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 것이라고 대

답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오늘날 예수님이 언급하신바 왕국의 복음을 어느 곳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는 경전을 인간의 뜻대로 해석하는 곳에서가 아니며 예수께서 십이사도에게 주신 성스러운 권능이 있는 곳에서라야 가능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15:16)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마 16:19)

교회를 세우고, 경전에서 몇 구절 골라 교회의 기초로 삼는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산 가지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능력과 권능을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합당하게 위임을 받지 못하면 시장, 주지사 등의 직분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합당한 권능의 소유자를 통하여 성스러운 능력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국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

했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우리의 아버지도 살아 계시며, 두 분이 이 땅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간증하여야 하며 복음의 회복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에 관한 찬송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이 인간의 계명과 계율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으므로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연다면 진리를 찾아야 할 곳에 쉽게 도달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하여 주는 지침이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의 경험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십이사도의 일원이었는데, 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원인 학자 한 분이 수년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에서 연설한 적이 있었다. 곧 친한 사이가 된 우리는 자유로우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 십 수개 국어를 자유 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위대한 학자인 그는 신학, 법률, 문학, 과학, 철학 등 모든 분야를 통달한 것같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물론은 무식한 사람들이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천주교를 빼놓고는 전 기독교 세계를 통털어 보아야 물론에 필적할 만한 교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천주교와 물론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쪽이 옳다면 여러분이 틀린 것이고, 여러분이 옳다면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교는 논의의 대상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교회의 지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리다면 말할 것도 없이 틀리는 것이고, 비록 우리 측이 옳다고 하여도 오래 전에 떨어져 나간 배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베드로로부터 사도가 계승되어 왔다면 요셉 스미스라는 인물이 필요없으며 그렇게 되면 물몬교의 존재 이유는 타당치 못한 것입니다. 천주교에 사도가 계승되어 내려오지 않았다면 요셉 스미스라는 분이 필요했을 것이며 따라서 물몬의 주장에는 하등의 무순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이 고대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말일에 회복된 것이냐가 문제의 초점이 됩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기이한 업적 2-3페이지.)

만일에 사람들이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가 말씀하신 복음이 참으로 영원한 복음인지를 알려면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전을 고찰해 보는 사람이면 고대 예언자들이 초대 교회로부터 배도가 생긴다고 역설한 사실을 쉽게 알게 됩니다. 맛모섬에 추방당한 계시자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 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계 4:1)

그런 다음 천사는 천국 전쟁으로부터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여 주었고 또한 성도와 대항하여 싸울 사탄에게 주어질 능력도 보여 주었습니다. (성도라 함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계 13:7 참조) 만일에 베드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지상에 그대로 존

속될 것이었다면 이런 기록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배도가 있고 불법의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베후 2:14 참조) 이밖에도 많은 선지자가 이 땅에 기근이 찾아들 날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모스서 8:11-12)

왜 그럴까요? 이 땅에는 찾아봐야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상에 복음이 그대로 존속될 것이었다면 주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 사탄이 성도와와의 싸움을 일으키며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되리라고 하였을 때 영원한 복음을 지닌 사람은 예외로 한다는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설명이 없다는 것은 당시 지상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경전은 말일에 복음이 회복된다는 약속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오순절 다음 날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19-21)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것이 회복된 세상, 개혁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래된 집을 다시 개축한다는 것과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중에서,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성스러운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만유의 회복을 주장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합창단의 노래로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 주후 400년에 지상에 살았던 예언자 모로나이의 방문, 그리고 그가 물몬경을 번역한 판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담은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고수하다 목숨을 잃은 칙례 요한이 부활한 몸으로 돌아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칙수로써의 칙례를 베풀 수 있는 전능과 함께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인 멜기세덱 신권이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의 산에서 자기를 함께 하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땅을 찾아와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모두 합쳐서라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에게 이처럼 소중한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들과 같은 성스러운 사자가 우리를 다시 찾아준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 줄까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오지 않았던들 재림의 시간에 모든 세상이 황폐하고 말 것이라고 말라기가 언급한 예언자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서 4:6)

이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말한 바 주님이 자신의 신비한 뜻을 보여주셨다고 한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9-10)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엘리야가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거룩한 신전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제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이들 성스러운 사자들이 오신다는 사실을 예견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밧보섬에 있을 때 사탄이 성도와 싸워 그들을 통치할 능력을 갖는다는 사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라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 14:6)

복음이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이런 사실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계 14:7) 우리는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계 14:7)

요셉 스미스가 훌륭한 시현을 보았을 때 이 지상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

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본질을 믿었습니다. 몸도 지체도 감정도 없으며 한없이 높은 옥좌에 앉아 계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잘 설명한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몸이 없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으며 이해하며 담소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여러 백성 사이로 흩어질 것이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신 4:28)

요셉 스미스가 시현을 보았을 때 세상은 이런 종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 것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일에(우리는 말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신 4:29 참조) 요셉 스미스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는 야고보서의 권고를 믿으면서 모세의 충고에 좇아 숲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살아 계신 참다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만천하에 증거할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와 그가 못박혀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고전 2:2 참조) 이 말이 자신은 옛 예언자도 모르고 감사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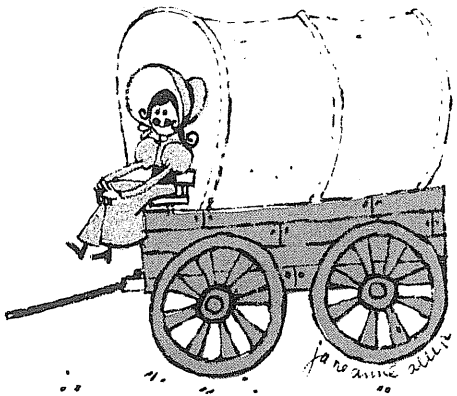
니며 바야흐로 새로운 날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인자 자신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복음의 회복 밖에는 모르며,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와 함께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이 훌륭한 진리를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누지 않을 때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요즈음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일 시간을 내서 이 교회에 대하여 알아 보고 정말이지 누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본다면 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나의 증거이며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축 서울 스테이크 발족

새로 조직된 스테이크 역원의 명단

부장 : 이 호남	서울와드 감독 : 김 차봉
제 1 보좌 : 김 창선	제 2 와드 감독 : 조 규영
제 2 보좌 : 최 육환	제 3 와드 감독 : 김 종열
집행서기 : 서 희철	제 4 와드 감독 : 홍 무광
재정서기 : 하 봉식	제 5 와드 감독 : 조 병하
기록서기 : 임 규선	제 6 와드 감독 : 구 증식
축복사 : 김 중균	제 7 와드 감독 : 양 재호
고등 평의원 : 김 산	제 8 와드 감독 : 이 강우
장 기호	신촌 지부장 : 손 재정
조 인식	춘천 지부장 : 임 춘호
민 경욱	스테이크 선교부장 : 서 원
차 중환	제 1 보좌 : 박 순중
박 기생	제 2 보좌 : 신 국재
남 영진	70인대 회장 : 박 관호
박 래정	제 1 보좌 : 최 인빈
윤 덕순	제 2 보좌 : 이 우영
전 종철	
손 승은	제 1 장로 정원회 회장 : 김 상호
주 덕영	제 2 장로 정원회 회장 : 고 용일
	제 3 장로 정원회 회장 : 양 해운
	청남상향회 회장 : 이 남선
	청녀상향회 회장 : 최 은화
	주일학교 회장 : 송 평중

루시 맥스미스

위대한 신앙의 여성

제이난 페인

태양은 구름 사이로 저 너머 푸른 초원과 수목을 밝게 비치고 있었다. 루시는 얼마 전 아들 요셉이 들려 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위대한 시현에 대하여 꼼꼼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기쁨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이러한 영적인 경험은 루시 자신에게도, 남편 요셉에게도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루시는 아버지 솔로몬 맥이 응답된 기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상기했다. 사랑하는 남편 요셉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시현과 꿈을 보았던 것이다. 루시 자신도 숲 속에서 무릎을 꿇고 남편이 진리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이에 참으로 영혼에 화평을 안겨다 준 아름다운 시현을 보았던 것이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가슴앓이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건강은 회복된다는 강한 신앙에 가득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죽지 않으며 살아서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리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모두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전초였던 것이다. 마침내 그녀의 열망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온 몸이 외쳤다. “그렇다. 틀림없이 그렇다!” 루시 맥스미스는 한결같은 여성이었다. 곳이나 개이나 그녀의 신앙은 굽힐줄 몰랐다. 이런 젊은 부모나 동기간을 사랑하는 마음씨에서도 잘 나타났다.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과 지지하는 태도로 받들었으며 아주 영적인 방법으로 자녀, 특히 어린 요셉의 신앙을 키워갔던 것이다. 신앙도 투철했지만 현명한 주부였으며 어머니였다. 가정의 밤은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성도와 이웃에 베푸는 봉사 역시 뛰어났다. 물론경에 대한 강한 간증을 피력했다. 순교로서 이 세상을 끝낸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의 유해를 어루만지던 비통의 순간에도 영원한 가족임을 굳게 믿고 위로를 삼았다. 그녀는 그

들이 실로 “사랑으로 세상을 극복”했으며,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그들을 안식처로 데려 가셨다고 믿었다.

루시의 신앙은 프리즘과 같이 새로운 생에 당면한 때마다 색다른 빛을 발산하였다. 루시는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쳤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눅 1: 46-47)

주님은 현명하고 헌신적인 어머니 리디아 게이츠 맥과 정직하고 용기있는 아버지 솔로몬 맥을 통하여 루시를 준비케 하셨다. 그리하여 선조의 신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루시도 숲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를..



하셨던 것이다.

루시는 미국 독립 전쟁중인 1775년 7월 8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는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불란서 전쟁, 인디안과의 싸움, 독립 전쟁에서의 경험담을 즐겨 들었다. 매복 작전으로 인디안과 싸우던 일,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한 동료를 구하던 일은 후에 루시가 기록으로도 남긴 바 있다.

자유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아울러 지휘 및 결정 능력도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았다. 아버지 솔로몬은 루시가 아홉살 때 부터 열 일곱 살이 될 때까지 집을 떠나 배를 타고 사업을 한다고 다녔으나 결국은 빈 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가족이 물질적으로는 곤란을 당하여 자녀를 교육시킬 형편이 못 되었으나 리디아 게이즈 맥은 그들에게 영적이면서도 배움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리디아는 솔로몬 맥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부유하고 교양높은 가문 출신의 학교 교사였다. 이것 또한 큰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족과 떨어져 있는 동안 자녀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부지를 혼자 걸머져야 했던 것이다. 학교 과목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드리는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루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정도는 스미스 일가가 버몬트를 떠나 뉴욕주 팔마이라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1816년 이별의 장면에서도 잘 나타났다. 루시는 “이제까지의 교육은 물론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인 경건하고 자애스러운 부모결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어머니는 루시에게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위한 사업에 봉사하여 죽은 후에 같이 만나자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때만 하여도 두 사람은 영영 다시 만날 수 없을 것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루시는 어머니의 자립 정신, 교양, 언어의 은사를 물려 받았다. 그녀는 개척 생활의 없는 틈을 타서도 값진 일기, 편지, 전기기를 적어냈던 것이다. 그녀가 쓴 요셉 스미스의 일대기에 보면 예언자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것, 부모, 동기간에 관한 간단한 전기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수록했으며 흥미와 유틸, 명쾌하면서도 영적인 감동을 주는 문학 작품으로 역사의 주시를 받기에 충분하다.

여덟 자녀의 막내인 루시는 귀여움을 받고 자라면서도 남이 본받을 행동으로 일관했다. 언니 로비사와 로비나가

앓고 있던 시절, 루시는 열 세살 때부터 열 아홉살 때까지의 긴 세월동안 두 언니의 병 간호를 떠맡았던 것이다.

설혼이 다 된 두 언니는 당시 가슴앓이로 통하던 결핵을 앓고 있었다.

루시에게 한때 대단한 감동을 주었으나 후에는 많은 미지의 의문을 남겨준 일은 로비사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갔다가는 곧 악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병에 걸려 2년이 지났을 때 3일 동안이나 혼수 상태를 거둬, 죽을 일보 직전에 놓였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로비사를 찾아가 이런 말을 했다. “주님이 나의 영혼과 육신을 낮게 해주셨어.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는 옷을 주시지 않겠어. 난 이제 일어날 수 있어.”①

두 언니는 1794년 루시를 의롭게 남겨둔채 몇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의 극단적인 종교 교리도 마음의 위안이나 화평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영적으로 바라던 바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낙망한 동생을 보다 못한 오빠 스티븐은 버몬트주 턴브릿지에 와서 얼마 동안만이라도 같이 지내자고 했는데 루시는 이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새로운 얼굴과 환경에 감사할 뿐이었다. 이곳에서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흰출한 키에 부드러운 음성 of 청년을 만났다. 일년간 교제 한 끝에 1796년 1월 24일 턴브릿지에서 둘은 결혼하였다.

자기에게 줄 결혼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루시의 맑고 푸른 두 눈은 휘둥그레 졌다. 오빠의 동업자인 존 무켓이 이렇게 말했다. “루시에게는 이렇다 할만한 것 하나쯤 있어야지. 난 자네가 주는 것만큼 내놓겠네.”

“그래? 난 현금 500불을 주겠네.” 스티븐이 말했다.

“좋아. 그럼 나는 500불을 더 주겠네.” 존이 말했다. ②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혼 지참금 1,000불은 자신이 참으로 중요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다. 1불에 땅 1에이커를 살 수 있는 1796년으로 보면 실로 거금이였다. 이같은 결혼 선물은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뜻도 있었지만 가족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진장하고 용모가 단정한 조셉도 이미 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던지라 루시는 이 지참금을 장차 사용할 목적으로 고이 간직하였다.

루시와 조셉은 스티븐과 존에게 감사를 표하고 뉴 햄프셔의 길썬 근처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뵙고 나서 곧 턴브릿지로 돌아 왔다.

한 6년동안 농사도 잘되어 번성했다. 루시는 1798년에

알빈을, 1800년에 하이람을 낳았다. 그리고 1802년에는 렌 돌프로 이사하여 상점을 열었다. 27살이 된 루시가 감기에 걸려 몇 주일 동안을 열과 기침으로 고생하더니 결국 폐결핵에 걸린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 보는 의사마다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조셉은 비탄에 빠졌다. 루시는 영혼을 다 바쳐 열렬히 기도했다. 만일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③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있는 루시를 물어다 보았다. 놀란 어머니는 이렇게 외쳤다. “루시야, 좋아지고 있구나!” 루시가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제가 주님과 한 약속에 충실하기만 하면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남편, 아이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죠.”④

이같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루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지식을 갈구하여 여러 교회를 찾아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적지아니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탄식은 예언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분(목사)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 왔지만 도대체 자기가 택한 주제를 이해하지도 못한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지금은 내가 찾는 종교가 이 지상에는 없다.”고. 따라서 나는 성경을 좀더 연구하고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을 지표로 삼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알아 보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성경을 생명과 구원의 안내자로 삼기로 작정했다.⑤

병 고치는 은사를 믿는 루시의 태도중 두 가지는 기록으로 남길만 하다. 1813년 발진티브스가 뉴 햄프셔의 레바논을 휩쓸며 기승을 부렸다. 아이 여덟이 다 이에 걸렸다. 당시 열살먹은 소프로나아는 거의 삼개월 동안을 심하게 앓아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였다. 소프로나아가 숨을 거두자 루시는 이 죽은 아이를 안고 마루를 거닐며 열렬한 기도를 드렸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소용없어. 너 미쳤구나. 아이는 죽었던 말이야.” 그러나 소프로나아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던 것이다.

요셉 이세도 여덟 살 되었을 때 발진티브스에 걸려 다리를 앓았다. 고통스런 수술을 세차체나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의사는 절단을 요구했으나 루시는 막무가내였다.

줄로 묶자고 했으나 요셉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술로 마취를 하자는 것도 마다했다. 루시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어머니 이 방을 나가 주십시오. 제가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시면 못 견디실 거예요. 아버지라면 몰라도. 어머니는 저의 간호때문에 오랜 동안 제 곁을 떠나지 못했어요. 이제 지칠대로 지치셨어요.” 나의 얼굴을 쳐다 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방을 나가 주시는 거죠? 주님이 도와 주시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가 있어요.’... ”

“(씨의) 세째 조각을 들어낼 때 나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런데 아—어머니의 눈에 뿜 광경이란! 상처는 헤쳐 놓은 상태였고 피는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 정말이지 침대는 피로 온통 물들어 있었다. 요셉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그 위로 굵은 땀 방울이 흘러 내렸다. 몸 전체가 말 못할 고통에 빠져 있다고나 할까.”⑥

요셉은 수술 덕분에 곧 회복할 수 있었으나 몇년 동안은 다리를 심하게 절었으며 여생을 약간 절름거리면서 걸어야 했다.

루시 맥 스미스는 여성으로서, 주부로서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뚜렷한 개성의 구조는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충동적이며 결단력이 강했지만 영의 속삭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절하고는 했다. 그들이 팔마이라로 이사를 가고 있을 때였다. 나쁜 짓만 골라가며 하는 마부가 말, 마차, 그리고 세간을 훔치려 했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혼을 내주었다. (조셉 일세는 몇 주전에 팔마이라로 떠나고 없었다.)

“여러분 여기를 잠깐만 봐 주십시오. 이 마차와 세간 살이는 분명 제 남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훔치려 했습니다. 이제 없어진다면 저에게 아이 여덟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더 갈 수도 없죠.”

그리고는 도둑질하려던 마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마차를 만지지도 말아요. 이제 가서 할 일이나 해요. 소용없어요.”⑦

루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팔마이라에 완전히 도착하였으나 “현금 2전 밖에는” 없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루시는 자신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 팔마이라에서의 첫 해에 그들은 놀랄만한 결실을 얻었다. 조셉과 루시는 결혼을 하면서 부터 즐기차게 붙어 다니는 흥년과 사업 실패에 쫓겨 뉴욕에

오기까지 무려 여덟번이나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팔마이라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그들은 100에이커 중 30에이커를 개간하였고 통나무 집도 하나 지었다. 루시는 베로 만든 보자기에 채색을 해주는 일로 음식과 가구를 구입할 정도로 수입을 올렸다.

이년 후에 알빈은 부모가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집을 만든다고 손수 설계도를 그렸다. 그때에 루시는 45살

진리를 열심히 찾았다. 조셉 스미스 일세가 밤낮 싸우고 험뜰는 분위기에 견디다 못해 교회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자 루시는 저으기 실망하여 남편이 참다운 복음을 찾아 받아들여 주기를 기도로 간구하였다. 그녀는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들어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조셉도 루시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꿈을



흥년, 사업 실패로 조셉과 루시는 여덟 번이나 집을 옮겼다.

이었는데 두 살먹은 아기가 있었다. 루시는 새로 짓는 집을 아주 좋아 했고 1823년 11월에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알빈은 위장병에 앓게 되었다. 그런데 서투른 의사가 염화 수은으로 고친다고 하다가 잘못되어 세상을 떠났다. 알빈은 숨을 거두면서 하이람에게 집일을 끝내달라고 부탁했다. 요셉은 성실하였고 실컷이도 말아했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를 상냥하게 대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던 알빈이 25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가족과 온 이웃이 슬퍼했다. 새 집에서 얼마 지나지 못했다. 스미스가는 사기꾼에게 속아 애써 가꾼 농장과 집에서 쫓겨 나게 되었다.

루시는 어려서부터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꾸고 시현을 보았다고 했다. 루시는 남편이 신권을 받고 말일의 첫 교회 축복사가 되기 전에도 가장으로서 공경하였다.

루시와 조셉 스미스의 사랑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련과 핍박 속에서 정화되고 더욱 고귀하게 되었다. 1840년 9월 14일 남편이 눈을 감자 루시의 미래는 “고독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았고 이 보다 더 무서운 고통과 비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후 4년 동안에 아들 넷 손자 넷, 며느리 둘을 잃는 아픔을 당했다.

프리즘과 같은 그녀의 신앙에서 가장 빛이 난 면은 어머니로서의 루시였다. 루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아끼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께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쳐 신

양의 싹을 심어 주었다. 그녀는 11남매에서 9남매를 성인으로 길러냈다. 14살의 어린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에 관하여 말씀드렸을 때 루시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녀의 영혼은 것처럼 기다리던 참다운 복음의 회복이 점차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며 기쁨에 가득찼다. 그녀는 아들과 가족의 사명과 성취에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루사는 매일 가족을 한데 모아 놓고 요셉이 자기 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더 듣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간구했다. 루시는 요셉이 긴 4년 동안 시련을 통한 성장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모로나이 천사가 나타나 금판과 회복 사업을 맡길 때까지 무뎠던 참았고 실망했을 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으며 모든 일을 지각있게 처리하였다.

알빈은 가족 모두에게 보다 일찍 일어나 해떨어지기 전에 발일을 마치자고 했는가 하면 어머니에게는 저녁을 일찍 먹고 치운 다음 모두 둘러 앉아 요셉의 이야기를 듣자고 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보다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에 기쁨을 금치 못했다.

루시는 요셉이 번역하고 있는 기록에 나타난 옛날 백성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다. 마침내 물문경을 읽고서는 그들이 것처럼 오래 동안 겪었던 좌절과 고뇌의 뜻을 곰곰히 생각하여 보았다. 그리고는 정말이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열렸으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외쳤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노라.”

루시는 물문경을 좋아하였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서슴치 않고 이 책에 대한 강한 간증을 피력했다. 수백명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물문경은 진실한 책입니까?” 그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간증을 남겼다. “그 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해 졌고 성신의 은사로 번역되었습니다. 제가 천사장 미가엘의 나팔과 같은 음성으로 말할 수만 있다면 땅에서 땅으로, 바다에서 바다로 다니면서 이 진리를 외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진리의 울림은 모든 섬에까지 울려 퍼져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변명의 여지를 없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인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아름다운 땅으로 모으시기 시작했으며, 만일에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나 기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바입니다.”^⑧

인정 많고 자비심이 강한 여성이었던 루시는 예언자와 가족이 쫓겨 다니며 심한 박해를 받기 전에도 그들을 돌보기에 안간힘을 다했다. 루시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키도를 원하는 때를 직감적으로 아는 듯 했다.

그녀의 신앙에 가득찬 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 칩체를 받고 나서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는데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친척을 방문하는가 하면 복음을 논하는 편지를 썼다. 오빠 솔로몬도 그녀의 편지와 관심에 힘입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충만했던 한 여인, 루시는 그녀의 가족이 쫓김을 받고 박해를 받기 오래 전에 이미 그녀의 가족과 예언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녀들이 그녀의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를 직관적으로 아는 듯 했다.

그녀의 신앙에 찬 기도는 가족 이외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칩체를 받은 후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으며 특히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친척을 방문했으며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복음을 설명했다. 그녀의 오빠 솔로몬은 그녀의 편지와 오빠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 교회에 입교하게 되었다.

요셉이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녀는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알빈이 데리로 칩체를 받고 신전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알빈은 1823년 모로나이 천사가 방문하기 몇 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하이람은 1826년에 제무샤 바덴과 결혼했으며 요셉은 1827년 1월 18일에 엠마 해일과 결혼했다. 루시는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모범적인 시모였다. 위의 두 아들이 순교한 후 루시는 여생을 엠마와 함께 보냈으며 엠마는 1856년 루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모를 극진히 돌보았다. 루시는 손자, 손녀를 사랑했다. 요셉과 엠마가 네번씩이나 유산을 했을 때 루시는 자기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이 슬퍼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루시의 집에서 영접 받았다. 그들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침대를 내어 주고 그들 부부는 마루 바닥에서 자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루시를 “어머니”라고 불렀으며 루시도 그를 아들로 대했다. 그녀의 신앙으로 그의 번역 사업을 격려했다. 마틴 해리스의 약속을 어긴 일로 인해 예언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고통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틴 해리스를 사랑했다.

그녀는 이같이 자비로운 여인이었지만 때로는 열화같이 잘못을 꾸짖을 때도 있었다. 그녀의 주님에 대한 헌신과 정의감은 그녀로 하여금 위엄있는 여인이 되게 하였다.

그녀의 지도력은 1831년 이른 봄에 시험받게 되었다. 성도들에게 팔마이라 지방에서 커틀랜드로 옮기라는 명이 내렸다. 루시 가족의 대부분은 1월에 먼저 떠났으며 루시는 두 어린 아들 윌리엄과 돈 칼로스의 도움을 받아 워터루 지부에서 80명의 성도들을 이끌고 이주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식량이 부족한데다 날씨가 혹독해서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이끌고 에리 운하를 너벅선을 타고 5일간이나 걸려 건너다는 것은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다. 일행이 버팔로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도 콜레스빌 지부의 몇몇 회원들이 있었으며 커틀랜드까지 배를 타고 갈 길을 찾고 있었다.

항구가 얼어 붙어 성도들은 우왕 좌왕하고만 있었다.

콜레스빌 형제들이 루시의 일행에게 말일성도란 신분을 밝혀서는 배도 구할 수 없고 유숙할 집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귀뜸해 주자 루시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뿔뿔이 밝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번성하게 되리란 기대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커틀랜드에 갈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럽군요”

이는 예언적인 말이었다. 그녀는 신앙과 기도를 통해 일행이 함께 갈 수 있는 뱃길을 찾았다. 성도들이 갑판 위에서 큰 소리로 다투고 불평하는 것을 보고 윌리엄이 그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어머니, 저기서 사람들이 막 다투고 있어요 가서 말리세요”라고 말했다.



루시는 큰 키는 아니지만 몸을 위엄있게 곧추 세우고 얼음장 같이 싸늘한 푸른 눈에 불을 피우듯한 시선을 하면서 그 소란한 사람들 속으로 걸어 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위엄있게 울려 나왔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적인 속박에서부터 뛰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같은 어리석고 합당치 못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저바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같은 불평과 소란을 일으킬 마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자녀들보다 더욱 분별이 없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고 싶어하는 자매가 있는가 하면 굳건하고 힘찬 것을 기대한 형제들 가운데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전에 굶어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중에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자기 먹음 식량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내 자식처럼 맞아 들여 매일 먹을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두 그 욕망을 버린다면 열음은 부서져 우리는 자유롭게 향해갈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⑨

얼마 후 루시의 믿음은 보답을 받아 열음이 갈라지고 일행은 에리호로 향진했다. 배는 사람과 짐이 너무 많이 실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배가 틀림없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문사로 가서 물문의 배가 물문을 모두 실은 채 침몰했다는 기사를 신문에 냈다. 루시와 성도들은 페어포트에 도착해서 그들이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다. 루시의 큰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녀 생애를 통해 수많은 영의 은사를 열매맺게 했다. 예언, 간증, 병고침을 믿는 신앙, 영을 분별함, 그리고 지혜와 지식 등이 그 열매이다. 그녀의 예언은 성도들과 적들을 함께 놀라게 했다. 미시간주 폰티악의 어느 신교 목사가 그녀를 소개 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비웃으며 말했다: “부인께서 물문경을 번역한 것처럼 행세하는 불쌍하고 어리석고, 가없는 조 스미스의 모친 되시는군요”

그녀는 그 목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네 제가 요셉 스미스의 어미입니다. 그런데 맥에서는 어찌서 내 아들은 그렇게 말합니까?”라고 말했다.

라글즈 목사는 이에 “왜냐 하면 그 양반은 그 따위 물문

책으로 다른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라고 대답했다.

“그 책을 읽어 보셨나요?” 루시가 물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읽을 가치가 없어요.”라고 그는 되받았다. 이에 루시는 자신의 간증을 말했다. “그 책은 영원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그리고 성신의 능력과 은사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허허…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따위 책으로는 우리 교회의 어떤 회원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현명합니다”라고 그는 답했다.

루시는 영으로 충만하여 다음과 같이 힘있게 예언했다. “라글즈씨 제 말을 잘 들어 두세요. 앞으로 3년이 채 되기 전에 당신 교회의 회원의 1/3 이상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집사도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⑩

라글즈 목사의 비웃던 모습은 얼마 안되어 다른 표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2개월 후에 요셉 스미스는 루시의 권고로 제어드 카터를 미시간주의 선교사로 보냈다. 제어드는 그 목사의 교회의 회원 중 70명을 개종시켰으며 그 교회 집사였던 사무엘 벤트도 1833년 1월에 침례를 받게 되었으며 교회를 위해 큰 봉사를 하는 형제가 되었다.

요셉 스미스는 1842년의 그 박해가 절정에 이르던 암흑시대 동안 어머니의 공을 치하하였다: “나의 어머니는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여인 중의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나를 더욱 오래 살게 하여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함께 사는 즐거움을 오래 누리도록 해주시기를 기원한다.”⑪

가족은 그녀에게는 보화였다. 그녀는 남편이 임종에 그녀에게 남긴 예언적인 치하를 받을 만한 여인이었다.

“여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한 가정의 어머니라는 것을 모르오?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소. 우리가 세상적이 아닌 까닭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오. 그래서 그 악의는 우리 위에 쏟아지고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 가려 하오. 난 아이들을 볼 때 그들이 자라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들이 이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적에게 싸인 그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두렵소.”⑫

요셉 1세와 돈 칼로스는 가진 박해 끝에 1840년과 41년

에 각각 운명하였다. 그 후 사무엘은 요셉과 하이람을 구하러 카테이지로 가는 도중 폭도들의 쫓김을 받았다. 박해와 고난의 해를 넘기며 항상 아름다운 검은색 애마를 타고 다니던 그도 그 후 일개월만에 죽었다. 물론 그때 예언자와 하이람이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한 카테이지 감옥의 비극이 있는 때였다. 그러나 비탄이나 자기 연민은 루시의 본성에 없었다. 하나님과 영원한 가족을 믿는 신앙은 그녀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성도들을 이끌고 서부로 향하기 전 1845년 10월 나부의 대회에서 루시 스미스 자매는 총판리 역원으로부터 말씀 순서를 맡는 영광을 얻었다.

“그녀는 많은 회중들 앞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로부터 시작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가족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일곱 아들과 네명의 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길렀다. 그 가정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족은 없었다. 그녀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자녀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과 할 일을 주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랑과 선과 친절로 행하며 만인 앞에서 떳떳이 할 수 없는 일을 몰래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회중들에게 자기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5천명의 목소리가 “예”라는 소리로 뭉쳐 나와 그녀를 감동케 했다. 그녀는 그 답을 듣고서 요셉이 물몬경을 얻은 이후의 그녀의 가족이 받은 고난과, 시험과 박해의 18년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아들들이 집에서 쫓겨 나가던 일과 총에 맞아 숨진 일 거짓 모함으로 감옥 생활을 한 일 등을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억울함을 합법적으로 호소하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도 소용이 없자 그는 그들을 하늘 나라의 최고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루시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누구도 감동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나는 요셉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빨리 떠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 법적 소송 문제를 짊어지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법적인 문제가 심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에서 이 나라에게 조금은 괴로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쩐지 주님은 브리감 형제더러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곳 이 도시에 저의 시체를 묻어 주십시오.

요. 내 남편과 아이들이 묻힌 이 곳에 만약 내 나머지 아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간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함께가겠지만)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만약 제가 간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나의 뼈는 되돌려 이곳에 나의 남편과 아들이 묻힌 곳에 함께 묻어 주십시오”¹³

영 대관장님은 자신에게 그리고 회중들에게 스미스 어머니의 청을 그대로 받아 들일 것을 선언했다. 루시는 노쇠한 몸이라 서부로의 어려운 여행 길을 떠날 수가 없었다. 1856년 5월 나부의 맨손 하우스에서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루시 맥 스미스의 본보기는 오늘날의 교회 회원들에게 적절한 교훈이 되고 있으며 큰 감화를 주고 있다. 계보와 신전 사업을 통해 조상에 대한 공경심을 갖는 신앙; 자녀들을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케 하는 신앙; 남편과 신권을 존중하는 신앙; 절대 잊지 않고 가정의 밤을 갖는 신앙; 부모로서 그리고 주부로서의 신앙;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참된 복음을 변함 없이 참고 지켜나가는 신앙;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는 신앙; 어디서든지 가족이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간증으로 들려 주는 신앙;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간들에게 모범과 원리를 보여주고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가족에게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신앙 등은 그녀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다.¹⁴

각주

1. 루시 맥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생애(북크래프트사 1958) 11페이지
2. 같은 책 32페이지
3. 같은 책 34페이지
4. 같은 책 34—35페이지
5. 같은 책 36페이지 (이탈릭체)
6. 같은 책 57—58페이지
7. 같은 책 63페이지
8. 같은 책 204페이지
9. 같은 책 203—204페이지
10. 같은 책 215—16페이지
11. 교회 정사 5권 26페이지
12. 요셉 스미스의 생애 308—309페이지
13. 교회 정사 7권 470—71페이지

페인 자매—유타주, 프로보, 샤론 이스트 스테이크 오우크 힐즈 제5와드 초등학교 교사. 브리감 영 대학교가 주최하는 교육 주간 강의의 말았음. 주부이며 어머니이다. 1967—68년 미국의 미세스 아메리카에 2등으로 뽑혔음.

예수에 대한 간증

생명과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주님께 간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죄의 댓가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간증해야 한다는 분명하고도 확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성신이 저의 영혼에 주신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예수는 주님이시며, 그가 복음을 통해 빛이 될 생명과 영생을 주셨고, 오늘날의 영원하고 충만한 진리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선조들과 더불어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후계자가 되게 하신것을 저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 외에서는 간증을 달리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간증이 생겼다면 그것은 성신의 능력으로 생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신의 능력의 인도를 받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의 마음이며 뜻이며 음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온 세계에 간증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성신의 능력으로 말씀드리는 동안 만약 저의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고 여러분 마음 속에 썩이 솟아 영생으로 흘러 나온다면 또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게 된다면 여러분은 제 말



브루스 알 맥킴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씀이 참이며 성스러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은 분명히 성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영혼이 불타게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쓴 다음의 글을 읽어 저의 간증을 전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는 그를 믿는다.

온 마음 다해 그를 노래하고,
소리높여 찬양하고 기뻐하리,
내 입술은 간절한 기원을 드리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를 믿는다.

지상에 오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선행을 베푸신 그 이름
칭송받아야 하리,

아, 축복받은 이름. 그리스도,
나는 그를 믿는다.
마리아의 아들도 태어나,
지상의 인간을 다스리려 오신 주님
인간을 저의 고뇌에서
줄여 주셨네.

길을 가리키신 그리스도
나는 그를 믿는다.
아버지가 가지신 것을 모두 얻으시고,
인간에게 “나를 따르라, 친구들이여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리라”
말하셨네.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믿는다.
나를 복음의 잔디에 심어주신 주,
진리와 빛의 근원이신 주를
내 정성 다해 경배하리.

나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나는 그를 믿는다.
사탄의 포로에서 나를 풀어주신 주,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 궁전에서
그와 함께 살겠네.

높은 곳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는 그를 믿는다.
그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얻겠

네.
내가 비통이나 고통과 싸울 때라도
“너희는 언으리라.”
그의 음성 들리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나는 그를 믿는다.
인간을 다스리러
세상에 오시는 찬란한 그날
나는 그의 곁에 서겠네.

구원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은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며 그분이 하는 것을 물려 받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믿는 것같이 믿어야 하며 그분이 생각하는 것같이 생각해야 하며 그분이 경험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며 우리도 진보, 발전하여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이 지구를 창조하여 인간으로 번성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밖에는 달리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서 살았습니다. 영원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들로 내려 보내 끝없고 영원한 대속의 희생을 이룩하며 나의 영원한 계획을 완전히 이룩하게 할까?” 우리는 그곳에 있었으며 울손 에프 헛트니 장로의 시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 같은 풍채임에도
운유와 강함이 합친 고매함
그 얼굴의 영화로움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네.
대양의 물거품보다 더 흰 머리칼
높은 산정의 서리보다 더 희구나.
그는 말했다:—주위는 더욱 엄숙
해지고,
고요는 적막으로 바뀌었다.

“아버지여!”—노래같은 그 목소리,
인적이 닿지 않은 산정에 쌓인 눈이
방울져 녹아 흐르는
물 소리 같네
‘아버지여’ 인간은 죽어야 하니
당신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 공허한 그
때에도
생명의 맥박은 고동쳤나이다.

“미가엘 천사가 먼저 내려와
죽어야 할 몸, 인간이 되었는데,
당신은 구세주를 택하셨으니
보소서 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
내소서
원하노니 내 전에 가졌던 것 밖에는
아무 것도 원치 않나이다.
나는 기꺼이 희생하여
끝 없는 영광을 당신께 돌리리다.”

—조셉 필딩 스미스

완전에 이르는 길

52페이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베냐민 왕에게 나타난 천사는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인한 구원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모사 이야기 3:18)

요셉 스미스는 “당신들이 갖는 신앙의 바탕이 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원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대한 간증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즉 그는 죽으신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간증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오직 이러한 간증에 보탬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정사 3권 30페이지)

말하자면 주님의 대속의 희생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안계셨다면 우리 또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분 없이

는 불사불멸이나 영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날에 있었던 영화로운 일은 바로 천국이 열렸으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으며 살아있는 선지자들 즉 사도와 예언자를 통변인으로 불러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뜻을 세상에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니 이는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은 간증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의 참됨과 성스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말은 제 하나의 말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들려온 그 한 소리가 아닙니다.

저의 이 간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께서 영원한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세상에 나타나셨던 1820년 봄으로부터 성실한 사람들이 쌓아온 그 간증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으로부터 구원받으며 오늘날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갖게 될 간증의 시초일 뿐입니다.

이 사업에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효험과 덕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는 이 영원한 동산의 산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진리는 온 나라에 전해져 그들 백성이 간증과 증거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신앙을 같이 하는 주님의 대변자들의 진리의 외침을 받아들이는 만큼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다 모여 그의 이름의 증거가 되리라는 바로 그날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이사야 43:12)

오늘은 주님께서 그의 나라의 모든 장로, 그의 성 신권을 가진 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말할 권세를 가지며 성신이 임하여 그의 마음을 밝히고 구

원의 진리를 외치리라고 한 그날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외치는 바이며 진심으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나

파이처럼 나의 가진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도록 설복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사업은 참된 것

이며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시니 이는 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아멘



구원과 승영

부활, 구원, 및 영원한 가족 단위에 관한 설교

나는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설교의 결론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서 마지막 충고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 들임으로써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자신이 구원 받았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걱정했습니다. 선교사가 사람들을 찾아 집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오도르 엠 버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것을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한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목사의 말이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진리가 줄 수 있는 피해를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한된 지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진리—무한한 진리—우리가 모든 것을 알 때까지 계속 진리를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진 말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의미로는 순응에서의 구원을 말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만으로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원은 복음의 원리나 율법에의 순종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죽음으로부터의 단순한 부활만을 의미합니다.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불사 불멸과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부활이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악하거나 의롭거나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멸의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 20-22)

멸망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온 인류

가 이와같이 일반적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한 이후에는 “나머지 사람도 또한 살리심을 받을 것이나 또다시 자신의 옛 장소로 돌아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꺼이 받으려 하는 것을 받게 되리라”(교성 88 : 32)

멸망의 아들들도 (몇 안되는 수로 추측되나) 부활은 하나 그들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힘에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언자 엘마는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처지는 구원이 없음과 같을지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썩을 것이 없음에 죽지도 못하기 때문이라”(엘 12 : 18)

나는 몸이 있으면서 그 몸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죽음과 지옥과 끝없는 고통으로부터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회생의 참 가치는 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구원 이상의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또 하나의 구원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각 개인의 구원이며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율법의 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경의 한 예언자는 그와 그의 동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고하였음이요,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니파이이서 25 : 23)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일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 갈 수 있게 해

주는 한 개인의 매속 혹은 순종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붙은 구원을 나는 승영이라고 부릅니다.

승영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며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 앞에 그 길이 열려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해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서는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노력해야만 승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언자 엠올레크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내가 다시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들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실 수 없으리라. 이는 내가 그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음이니,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이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할진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죄를 짓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리라”(엘마 11 : 37)

그리고 엠올레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리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의 죄를 거두시어 그들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 외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악인은 죽음의 사슬에서 풀릴 뿐 구원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리라 보라 모두가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저들이 각각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을 날이 이르리라”(엘마서 11 : 40-41)

참다운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회개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지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될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나의 사촌 로

드니 모일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에 올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사무실에 들러 안부를 묻곤 합니다. 내가 그의 방문을 특히 좋아하는 까닭은 그가 언제나 나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말을 남기고 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에 찾아 왔을 때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다음 세상까지 가져가고 싶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더 높은 구원은 오직 복음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영원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승영과 영생을 뜻합니다. 이같은 영원한 가족 관계는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 값을 치렀을 때 하나님 왕국에서 물려 받을 수 있는 유산인 것입니다. 해의 영광에 있다 할지라도 승영에 이르기 위해 순종으로 그 값을 완전히 치루지 않은 자는 죽음을 면할 뿐이지 하나님의 가족의 조직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서 온전한 구원은 승영이나 영생과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이 같은 유업은 경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며 남내 노소할 것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영원토록 보존되는 가족 단위로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 천사가 이 경륜의 시대에 요셉 스미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 복음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언자 말라기가 한 성경의 말씀을 조금 바꾸어 인용했습니다.

“보라 가마술같이 탈 날이 이르러니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초개같이 타리라, 이는 찾아오는

자들이 저들을 태울 것임이다.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들은 태워 뿌리나 가지도 남기지 아니하리라”(요셉 스미스 2 : 37)

이 성구를 이해하려면 “뿌리”는 “선조”로 “가지”는 “후손” 혹은 “자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신전에 가서 가족이 함께 인봉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각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리된 상태에서 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생활의 따뜻함이 없다면 참으로 고독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승영의 온전한 값을 치르기를 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장가 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

나니, 이 천사는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에 합당하며 훌륭하고 영원한 값있는 영광에 합당한 자들을 받아들여 봉사하는 중이니라.

“이들 천사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러므로 저들은 증식할 수 없고 다만 따로 떨어져 홀로 있어 승영에 이를 수 없으며 구원 받은 상태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나니, 이 때로부터 신이 아니요, 다만 영구히 천사가 되느니라.” (교성 132 : 16-17)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신권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선조와 자녀들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선조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가족 승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지상에서의 생활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유산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인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로드니의 말을 빌어 나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다음 세상까지 가져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 소망으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선택을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신권이 이 지상에 존재하며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약의 아들과 딸로서 그분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승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영원한 지평선



신앙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주님을 알게 하나?

한 개인이나 나라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신앙이며, 이 나라를 세우고 암흑 시대에서 번영으로 이끈 사람들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용기와 통찰력과 꿈을 가졌으며 뒤돌아 보지 않고 앞을 향해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감과 계시로 이 교회를 세운 분들과 그 기초를 만든 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확실한 간증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 특히 성스러운 지도력에 대한 신앙이 오늘 날처럼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같은 성스러운 지도력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러나 세상 사람들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필요하며 이 땅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 본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 보아도 물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하

늘이 바다와 맞 닿고, 태양이 수평선에서 떠오르고, 저녁이면 다시 수평선 너머로 진다는 것밖엔 볼 수 없습니다. 땅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평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감지 능력도 우리 눈에 보이는 지평선까지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영의 지평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육신이 얻을 수 있는 물질이 그 한계입니까? 돈 벌이 경쟁이 그 전부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얻는 일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혹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더불어 같이 할 영원에까지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평선은 죽음을 넘어선 무한한 미래로, 세상적인 것을 초월한 무한한 경지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지평선을 현재의 제한된 지평선과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철학은 이곳에 오기 전에도 시작이 없었고 이 세상 이후에도 끝이 없을 영원한 삶을 말해 줍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이 다음에 올 우리의 행복은 이곳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결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더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때 영의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죽어야 할 육신으로 온갖 경험을 쌓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 큰 경험과 축복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그분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조셉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반하시며 또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이 영과 육을 지닌 이중적 존재이므로 영원한 존재를 믿지 못하며 따라서 그가 인간과 대화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그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생활화할 때 이 지상에서 다 영원한 세상에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안있어 집에 앉아서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라 안이나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혹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을 비웃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대회의 광경은 놀라운 전자 기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이 달 위를 걷는 모습도 보았고, 그들이 달과 지구 사이의 거대한 공간을 넘어 전달하는 말을 들었으며 그곳에서 보낸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과 노력과 지식

으로써 이루어 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속으로 혹은 육성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의 상태로 있으면서 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야 할 육신의 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은 인간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상에서의 삶에는 크고 원대하며 영예로운 목적이 있으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므로써 지식과 이해력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맞아 싸워야 할 것을 맞아 싸움으로써 경험을 얻고, 우리가 합당하게 삶을 영위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그분에게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선을 잃지 말아야 할 멀리 있는 지평선입니다.

물론경의 한 예언자인 엘마는 그의 시대에 있었던 일로 의복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난, 세상적인 물질과 마음에서 가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마에게 와서 그들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엘마는 신앙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신앙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사물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엘 32:21)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의 복음인 그의 말을 사람이 땅에 심은 씨에 비유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그 씨앗을 심고 주님의 영을 몰아내거나 거슬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씨앗이 참된 씨앗이라면 그것은 가슴 속에 부풀어 오를 것이며 또 우리가 그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 씨앗이 좋은 씨앗이고 우리의 영혼을 키워주고 우리의 이해를 밝혀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 혹은 말씀 혹은 복음이 부풀어 썩어 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자라면 여러분은 이것이 좋은 씨앗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식은 완전해지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인간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마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던져져서 주의 영을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슴 속의 부풀음이나,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과, 이해의 밝아짐 등은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그 씨앗을 길러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키워나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고대의 예언자는 우리에게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어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나 나무를 잘 돌보지 않는다면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태양 열이 그 뿌리를 말릴 것이며 나무는 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는 그 씨앗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또 그 열매가 얻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며 그 토지가 메마르고 그 나무가 잘 가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 혹은 나무를 가꾸는 신앙과 인내가 있다면 때가 이르면 그 값지고 맛있는 열매

를 얻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꾸고 복음에 있는 계명에 따라 살면서 복음의 진리를 기른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에 주님의 말일의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은 신앙의 도구를 통하여 그 음성을 들으며 만약,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또 우리가 그 영원하신 분과 하나로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장막 너머로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말일성도들은 죽어야 할 육신으로 세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참다운 목적을 성취하며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영은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믿으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철학은 전세에도 시작이 없고 다음의 세상에도 끝도 없는 영원함을 말해 줍니다.

이 생과 다가올 생에서의 행복은 이곳에서의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과 승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쇠막대기를 꼭 붙잡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삭 뉴튼 경이 빛의 본질에 대해 골돌이 생각하고 있다가 창문 커튼에 구멍 하나를 뚫으니 그 구멍을 통해 광선이 비취 들어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프리즘을 그 광선의 진로에 넣었더니 무지개와 똑같은 빛이 찬란하게 반사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우주의 온갖 색깔은 하나의 백광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

하는 아들처럼 되려면 복음의 원리에 좇아 살아야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선교 사업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복지 계획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의 사교 프로그램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으며 우리의 현 예언자들이 주님의 계시의 인도를 받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대로 그것이 천사로 부터 받은 것 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혼들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 빛, 복음의 빛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러한 사람이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러한 원리 중의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순수한 백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복음의 모든 원리를 믿지 못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겠다는 신앙이 없다면 그는 그의 마음 속에 순수한 복음의 빛이 깃들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자신을 채찍질 한다면, 여러분은 그 분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며 그분 또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지식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지평선은 영원한 세계로 뻗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구세주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원합니다. 그가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켜 해의 왕국에서 구원을 얻고 승영에 이를 것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노와 낮선 친구

버나딘 비티 씸
테드 나가다 그림



있어” 지노가 다시 말했다. 그는 마르코스가 그의 짐을 어깨에서 내려 놓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짐은 왜 그렇게 많이 싸갖고 왔니? 난 담요와 음식만 가져왔어” 지노가 말했다.

“난 산에 오를 때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다녀”라고 마르코스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는 지노의 할아버지가 그려준 지도를 폈다. “여기가 어디쯤 되지?”

“여기 쯤일거야” 지노가 지도위를 손가락질 하며 한숨을 내쉬듯이 말했다. 그는 긴 등산 길을 거쳐 옛 신전 터에 까지 마르코스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마르코스의 할아버지도 한 때 그 섬에 살았으며 어릴 적에는 지노의 할아버지와 친한 친구였다. 마르코스는 이 섬에 처음 왔으며 그의 할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해 주시던 그 옛 신전 터엘 꼭 가보고 싶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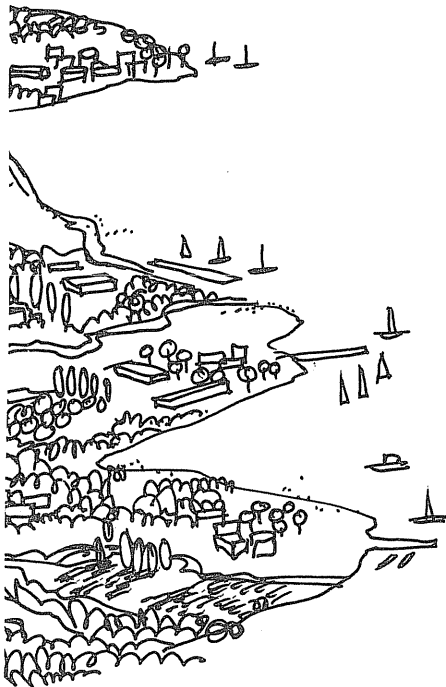
지노가 마르코스와 함께 가는 것을 불평할 때 할아버지는 “그러면 스테파노스와 콘스탄틴을 데려 가면 되지 않니?”라고 타이르셨다.

지노는 그가 살던 한 작은 그리스 섬의 험준하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지노가 어깨 너머로 뒤돌아 보니 그와 아직 낮이 선 마르코스 니카리스는 처음 출발 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지쳐 보이지 않았다. 지노는 마음 속으로 놀랐다.

“마르코스야 좀 쉬었다 가자” 지노가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을이 보이는걸!” 마르코스가 답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의 집 지붕들은 마치 에게해 푸른 바다로 향해 진군해 가는 핑크 빛의 작은 군대 행렬 같이 보였다.

“아직도 목적지까지는 많이 남



“가지 않을거예요. 그들은 마르코스를 싫어해요” 지노가 불평했다.

“그와 얼마 사귀어 보지도 않고서?” 할아버지가 놀라시며 물었다.

“마르코스는 아테네에 가면 멋진 집도 있고 큰 자동차도 있다고 항상 자랑만 해요. 이태리나 스위스, 프랑스의 산에 오르던 그런 이야기만 하구요” 지노는 얼굴을 찌푸렸다. “마르코스는 우리를 아무 것도 모르는 시골뜨기로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지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마르코스 할아버지와 나는 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갖곤 했었지”

“그렇지만 할아버지들 끼리는 친구이지 낯선 사람은 아니었잖아요”라고 지노가 할아버지 말을 받았다.

“낯선 사람이라니 무슨 뜻이냐?”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죠 뭐” 지노는 어깨를 위로 추켜 보이며 대답했다.

“아마 네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될 거야”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지노는 자기 것과는 너무 다른 마르코스의 튼튼한 등산화와 잘

어울리는 등산복을 힐끔 쳐다 보았다. “할아버지 말씀은 틀려 마르코스는 언제나 낯선 사람일거야!” 지노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노야 왜 네 친구들이 날 좋아하지 않지?” 마르코스가 물었다. 지노는 그 물음에 그가 할아버지와 나는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다.

“왜 그걸 묻지?” 지노는 얼른 뛰어 일어나며 마르코스의 질문을 피했다. “이제 가자 많이 쉬었어”

마르코스는 어깨를 움추려 보이고 지노의 뒤를 따라 나섰다. 정오 쯤해서 두 소년은 암벽 옆으로 동그렇게 나와 있는 좁은 바위를 따라 돌고 있었다. 지노는 좀 넓어진 곳에서 길을 멈추고 쉬면서 식사를 했다.

“정말 기분 좋은데. 얼마 안가면 신전 터에 도착해서 어둡기 전에 충분히 천막을 칠 수 있을거야” 지노가 말했다. “아 맛있다.”

마르코스는 지노가 주는 치즈를 바른 마른 빵을 아주 먹음직스레 입에 집어 넣어 씹으면서 말했다.

“난 고기와 과일을 갖고 왔어”

“그래서 짐이 그렇게 많았구나?” 지노가 말했다.

“다른 것도 또 들었지” 마르코스가 말을 받았다.

“넌 훌륭한 등산가로구나” 지노가 빈정대며 말했다.

마르코스도 “그래 난 훌륭한 등산가야”라고 말을 받았다.

“난 네가 자랑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 지노는 지체없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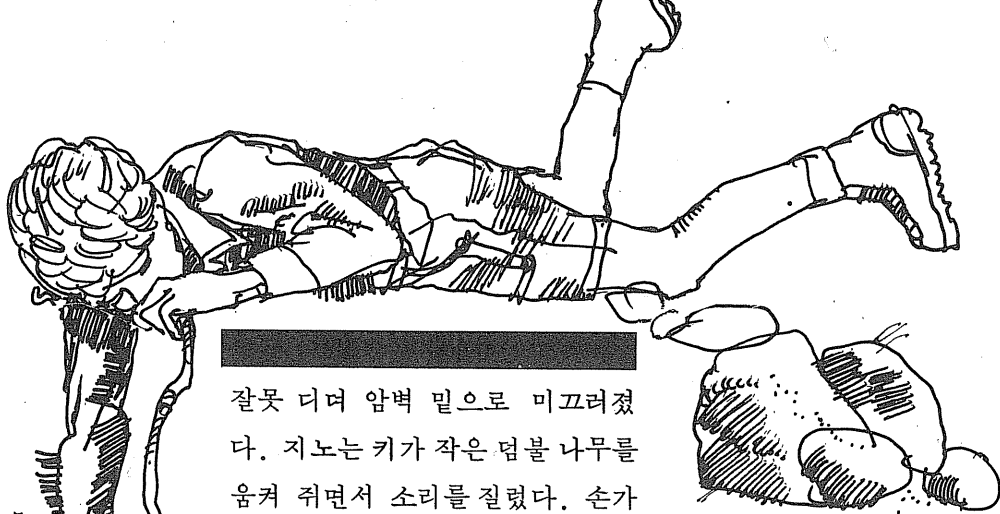
마르코스는 얼굴을 붉히며 “난 자랑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전부 정말이야!”라고 말했다.

“그만 두자” 지노가 입 속으로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래 그만 두자” 마르코스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다. “너와 네 친구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수영도 잘하고 다이빙도 잘하며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시골에서 사는 것이 훨씬 재미있다고 자랑하지 않았니!”

지노는 검은 눈동자를 크게 굴리며 되받아 소리쳤다. “우린 자랑하지 않아!” “너희들이 자랑을 했어, 내가 양을 염소라고 했을 때 날 비웃은 것은 누군데” 마르코스는 뛰어 일어났다. “그래 지노, 넌 너희 친구들에게 가, 난 혼자 가겠어. 네가 온 것은 순전히 할아버지 때문이지.” “마르코스, 잠깐만 기다려” 지노는 마르코스가 그의 짐을 움켜 쥐고는 산길을 따라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불렀다.

지노도 급히 일어나 뒤 따랐다. 그러다가 그만 험겁게 박힌 돌을



잘못 디더 암벽 밑으로 미끄러졌다. 지노는 키가 작은 덩불 나무를 움켜 쥐면서 소리를 질렀다. 손가락에 겨우 가지가 잡혔을 뿐이지만 당장 아래로 떨어지는 위기는 면할 수 있었다. 지노는 암벽 아래로 10피드나 미끌어져서 매달려 있었다.

“마르크로스! 마르크로스!” 지노는 발끝으로 절벽의 벽을 긁으며 소리쳤다. 그는 위를 올려다 보고 마르크로스의 모습이 나타나자 안도의 숨을 쉬었다. “지노 걱정마! 밧줄을 내려 줄게” 마르크로스가 소리쳤다.

“밧줄을 갖고 오지 않았어” 지노는 신음과 같은 소리를 질렀다.

“내가 갖고 왔어” 마르크로스는 대답을 하고는 모습이 사라졌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튼튼한 밧줄을 내려 줬다.

지노는 무사했다. 그는 떨리는 몸으로 암벽 위에 올라 앉았다. “고맙다 친구야!” 지노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난 밧줄을 내려 준 것 뿐이야 내가 그런 위험에 처했다면 너도 그랬을거야.” 마르크로스는 눈을 치켜 뜨며 “친구라고?”라고 물었다. 지노는 마르크로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정말이야 네가 날 내려

다 보던 그 얼굴은 바로 친구의 얼굴이었어! 너에게 또 이야기 해야 겠구나. 우리 친구들과 나는 자랑을 했지. 그렇지만 그건 네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야”라고 이빨을 들어내 웃으며 말했다.

마르크로스도 양처럼 웃으며 “나도 마찬가지로야 너와 네 친구들이 날 중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지노는 웃었다. “우리가 내일 신전 터를 들러 집으로 돌아가면 할아버지께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

“그게 뭘데?”

“낮선 사람이란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라 낮선 사람은——” 지노는 말을 잊지 못하고 한참 적당한 말을 찾고 있었다.

“마치 입혀지기를 기다리는 훌륭한 책과 같은 것이라고?” 마르크로스가 말을 이었다.

“그래.” 지노가 동의 했다. “그리고 친구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보리 추수기가 접어들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추수기가 되면 이삭줍기의 법으로 알려진 특별 법이 발효하게 되는데 이는 가난한 자들이 들에 나아가 추수하고 땅에 내버려진 이삭이나 곡식 혹은 포도 덩굴 등을 줍어도 좋다는 법이었다. 어느 날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여쭙었다. “나도 밭에 나가게 하소서.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내 딸아 갈찌어다”라고 허락을 내렸다. 룻은 이웃 밭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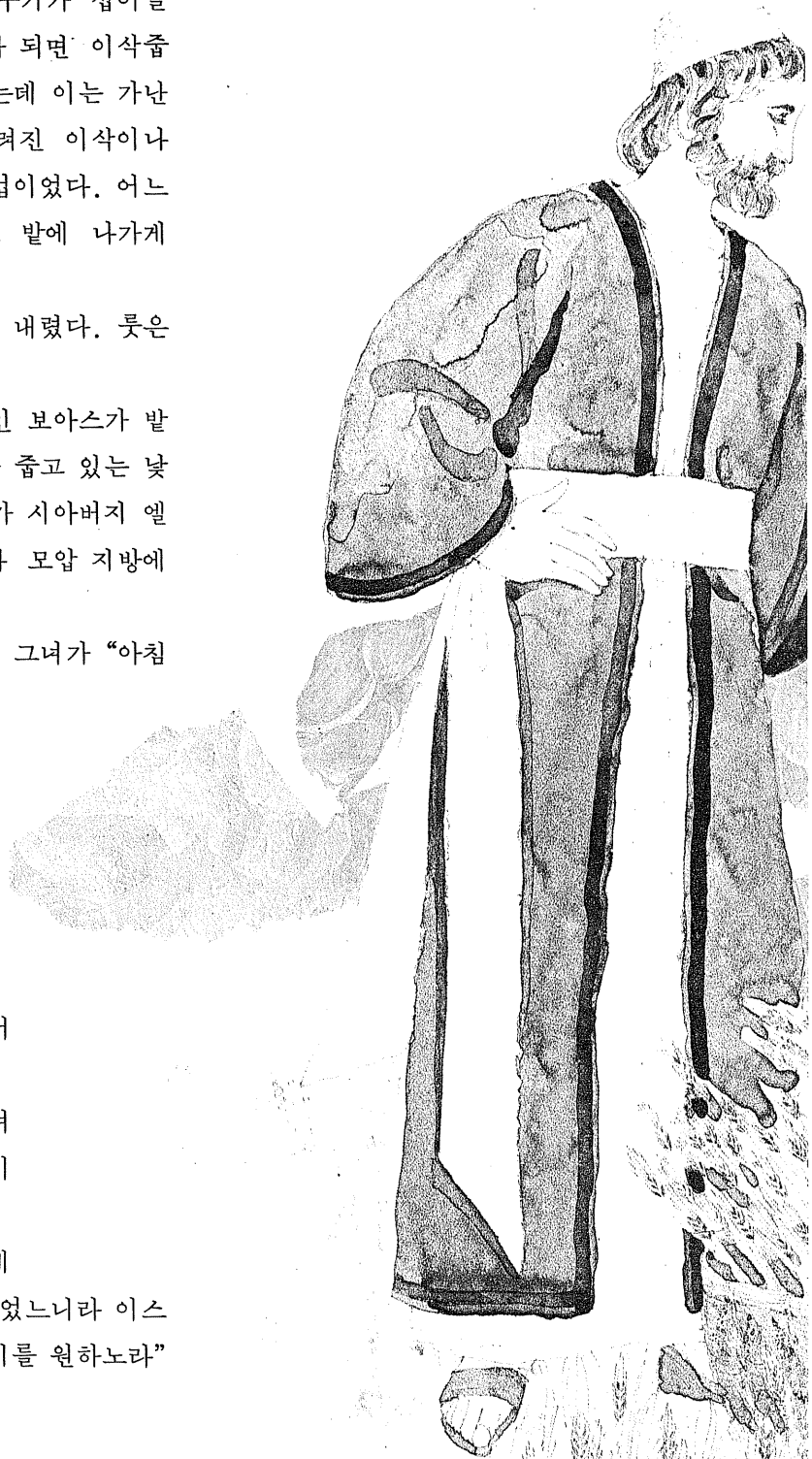
어느날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의 일꾼들을 보러 나왔다가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여인을 보고는 그의 종들에게 물어 그녀가 시아버지 엘리벨렉과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돌아 왔다는 것을 알았다.

룻은 열심히 일했다. 한 종이 보아스에게 그녀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가서 말하되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다. 또 언제든지 와서 이삭을 줍어도 좋고 물은 소년들이 샘에서 길어온 것을 마셔도 좋다고 말했다.

룻은 “나는 이방인이어늘 당신이 어찌 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 보시 나이까?”라고 물었다.

보아스가 답하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네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다.



룻

매리 엘 러스크 지음

제리 할스톤 그림

그리고 보아스는 그의 종들에게 룻이 마음대로 이삭을 줍게 하도록 이르고 또 일부러 한줌씩의 곡식을 땅에 뿌려 룻으로 하여금 줍게 하였다.

룻이 그날 저녁 이삭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그날 있었던 행운을 이야기 했다. 나오미는 기뻐했다.

룻은 주님의 축복을 받아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을 수 있었다.

룻이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 하루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에 속한 기업들 모두 사들였다. 보아스는 시장에 나가 장로들과 온 백성들에게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이에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주님이 당신 가정을 축복하소서”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였으며 나오미를 모셔 그들과 함께 살았다.

룻이 아들을 가지니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룻과 나오미는 그들에게 내려진 많은 축복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했다. ㉞

친구가 친구에게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나는 어렸을 적에 부친인 앨버트 로렌조 켈리모어로 부터 선교사 생활 중에 있었던 재미있는 경험담과 또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들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은 지갑이나 전대를 갖고 다니지 않았다. 이 말은 돈이나 다른 일용품을 갖고 다니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들은 주님께 의지하여 음식과 잠잘 곳과 입을 옷을 마련해 받았다. 아버지는 선교사 생활을 하시는 동안 언제나 잠 잘 곳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음식도 충분히 취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번은 자신의 초라하고 지친 모습과 남루한 의

복 때문에 걱정을 한 때가 있었다. 먼 길을 걸어서 구두는 다 떨어졌고 바지 저고리는 다 헤어졌으며 사쓰는 냥마처럼 되었고 모자마저 나무 가지에 걸려 구멍이 나 있었다. 아버지는 새 옷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전에 하지 않던 기도를 했다.

아버지는 얼마 후에 군청 소재지인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편지 세통을 받았는데 봉투마다 돈이 들어 있었다. 모두 세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도 모두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점포로 가서 필요한 것들을 샀다. 점원이 물품값을 계산했는데 그 총액이 아버지가 가진 액수와 꼭 같았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이것은 참으로 기도의 응답이었지.”

선교사 생활을 한지 18개월 쯤 되던 어느날 아내의 생일이 가까왔는데 선물을 보낼 여유가 없어 걱정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일로 마음아파 하였으며 집을 그리워 하는 마음으로 가득차게 되었



다. 이 특별한 날에 선물을 보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였겠는가?

아버지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 하셨다:

“나는 너의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 특별히 금식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했었어.

“우리가 캄벌랜드 산맥의 꾸불꾸불한 인적 드문 고지의 길을 가고 있을 때였지. 집은 십리나 걸어야 하나씩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우리가 걸고 있는 곳은 거의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 그곳 주민들도 매우 가난하였고,

“어느 날 우리가 마차 길을 따라 걸고 있는데 그 길은 몇개월 동안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듯 보였어. 길을 걸다가 문득 내려다 보니 예쁜 브로우치가 떨어져 있지 않겠니. 카드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장에서 직접 나온 물건 같았어. 그 근방의 주민들은 그 같은 물건을 살 여유가 없을 것 같이 생각 되었지. 내 동반자는 날 보고 ‘이것은 자네의 기도의 응답이야’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 후 며칠 동안의 여행 길에서 만나는 집집마다 혹시 그 브로우치의 주인이 없는가 알아보았지만 아무도 그 브로우치에 대해 모르고 있었지. 결국 그것은

그 근방의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 생각하고 네 어머니의 선물로 집으로 부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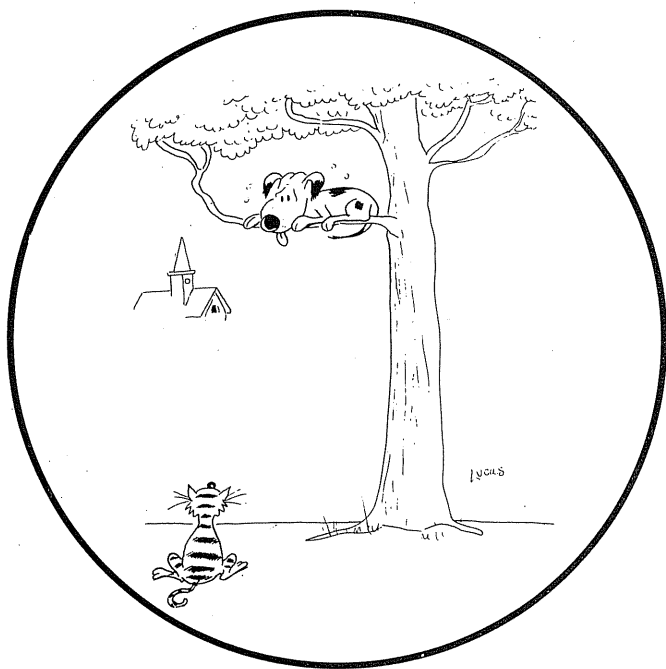
“어머니는 그 예쁜 선물을 받고는 기뻐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부칠 수가 있었을까 하고 의아해 했지. 네 어머니는 내가 집으로 돌아 올 때까지 그 브로우치를 달고 있었어 내가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것이라고 알려 주었더니 네 어머니는 혹시 잃어버릴세라 그 이후엔 그것을 달고 다니질 않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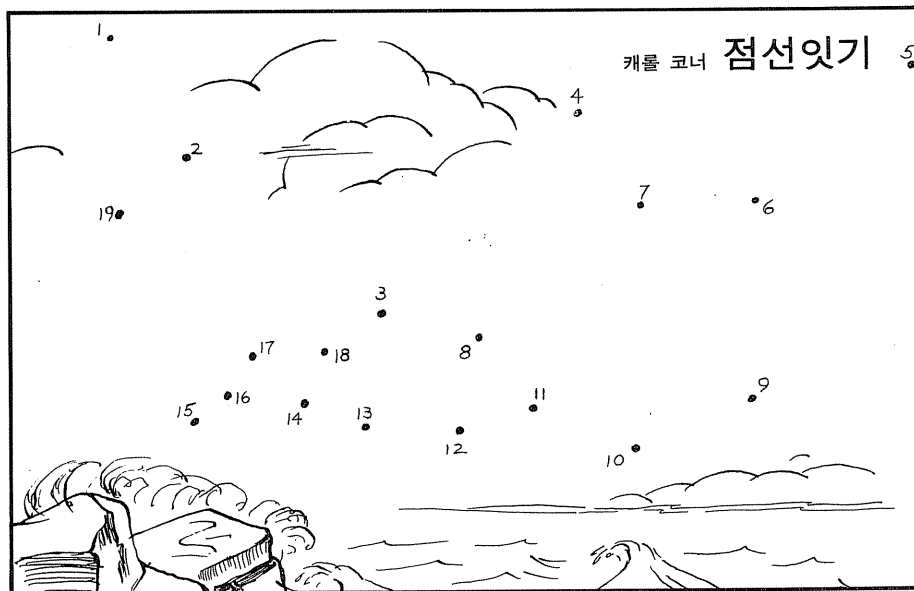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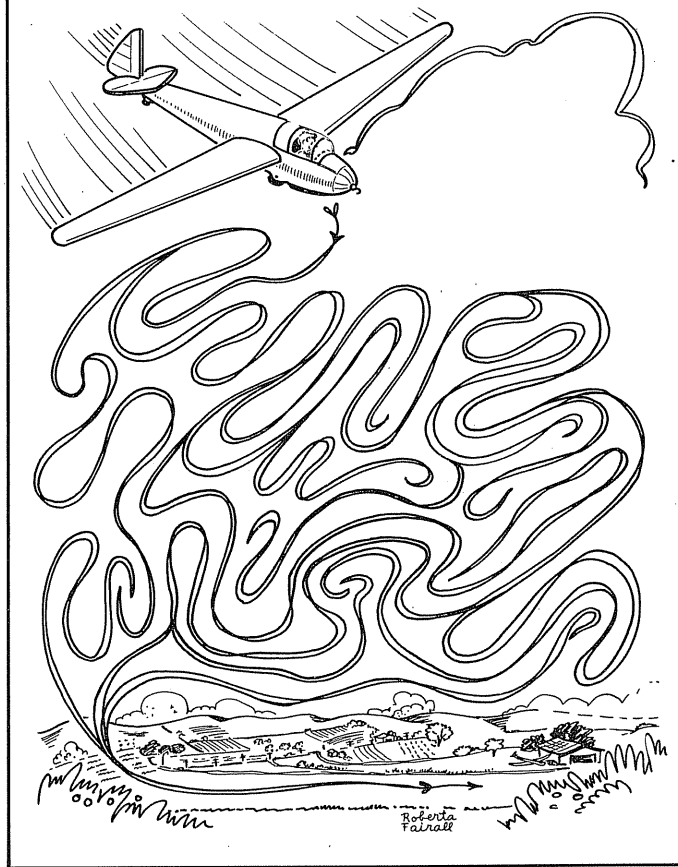
그 브로우치는 지금도 우리 집에 있으며 아버지의 선교사 생활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물건 중의 하나이다. 圖



심심풀이



하늘의 미로 로버타 페어롤 그림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권투 선수가 되어 헤비급 세계 선수권을 차지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경제공황 때였으므로 백만장자 되는 가장 빠른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나는 몸집이 좋았고 당시의 몇몇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쉽게 전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년 후면 내가 누리게 될 그 찬란한 꿈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막연하게나마 제대로 체제 잡힌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체구가 작으마한 아주 탄탄하게 보이는 사람이 이웃에 이사를 왔는데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는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바로 그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밖으로 달려가 그분의 이사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처음으로 “아저씨는 권투 선수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며 “역시 그렇게 보이지? 그래 난 칠 팔십번 정도 시합을 가졌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권투 선수예요!”라고 나도 받아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어 그래 체격이 아주 큰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어서 “하지만 난 아직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걸요. 저에게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시합에서는 전승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윽고 답을 주었습니다. “좋아, 언제 한번 우리집 차고로 오너라”

나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그를 찾아 갔습니다. 그는 나의 이같은 열렬한 태도를 보고 웃으면서 연습용 큰 장갑을 찾아 왔습니다. 그의 체중은 120~125파운드 정도 였습니다. 내 체중은 190파운드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셔츠를 벗으며 “저의 체중이 아저씨의 체중보다 더 무겁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에 대답을 않고 장갑의 끈

을 매었습니다. “난 본능적으로 싸운단다.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틈만 있으면 난 널 파고 들어가 내가 너무 세게 때린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건 고의로 그러는 것은 아니야”라고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무래도 괜찮아요”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를 올려다 봤습니다. 웃음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 이제 덤벼봐” 라고 이야기 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참으로 창피한 것입니다. 나는 그를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때도 때려보질 못했습니다. 약 1분쯤 후에 나의 자세는 흩어져 헛점을 크게 들어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나의 턱에 적중했습니다. 나의 턱을 맞힌 그의 큰 장갑은 마치 쇠망치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곡식 자루 마냥 폭석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와 위로 올려다 보니 그는 장갑을 벗고 있었습니다.

나는 뛰어 일어나 “아니, 더 해요.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알겠어요. 하지만 난 아저씨한테서 배울 수가 있어요”라고 말했지만 그는 머리를 가로 흔들며 장갑을 벗어버렸습니다. 백만불의 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매달려 “질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여전히 머리를 가로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썩싸고 팔팔한 파리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와 빙빙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뻗어 그 파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다음엔 네가 한번 잡아보지”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노쇠하고 힘이 없는 파리 한마리가 다시 팔을 뻗으면 땅을만한 거리에까지 날아왔습니다. 나는 팔을 몇번 휘둘렀지만 어렵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가 가진 약점이야 넌 반사 작용이 늦어,

그건 고칠 수가 없어. 넌 키가 큰데 농구 같은 것을 생각해 보진 않았니?”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나는 의기를 잃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생을 거의 다 살고 있었으며 바로 그 여름이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여름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측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왜 난 이래야만 되지요? 왜 난 반사 신경이 그렇게 둔해야만 합니까?” 나는 이러한 불평을 하다가 어머니가 피곤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을 참으시면서 힘 없이 말했습니다. “보미야 네가 지닌 것으로 충분하단다!”

어머니의 이 말씀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이 되었습니다. “네가 지닌 것으로 충분하단다” 만일 여러분들이 약한 마음을 갖게 되거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때에는 헨리 제임스의 유명한 말대로 여러분이 아무 것도 읽은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닌 것으로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여러분과 같이 자신을 낮게 보거나 위축되거나 잘못 준비된 상태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닌 힘을 활용하여 앞으로 매진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잘 것 없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보는 대신 공부하고 양서를 읽고 하는 것이 희망도 없고 아무 결실도 얻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도하는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리처드 엘 이반스 장로께서 늘 즐겨 하던 말씀대로 “일어날 일은 언제고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로버트 케이 토마스
프로보, 유타.

질의 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어떤 사람이면 딸에게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답 / 오크스자매



스텔라 에이치 오크스
프로보 시립 학교
일반 및 성인 교육 책임자

대부분의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은 현실적으로나 영원한 면에 있어서나 훌륭한 물몬 젊은이를 찾는데 능숙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 마음은 결혼 중매인과 같습니다.

저는 저희 딸을 데리러 올 때 가족에게 스스로 없이 대하며, 언제까지 돌아 오겠다는 것을 알려 주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늦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전화로 알려 주고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합니다.

저는 또 자신에 차있고 자신이 남자란 것을 알며,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신사다우며 따뜻함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갖추지 않았다면 여성다움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습니다. 여자란 남자 곁에서 남자를 도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봉사는 남자의 사랑에 찬 보살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남자는 썩썩해야 하며 여자의 화려한 낭만의 정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은 세상이 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간결하게 말하였습니다. 남자는 음악, 문학, 무용 및 연극 따위 예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은 그들의 인격을 정화해 줍니다.

저는 물몬의 젊은이게서 완전을 찾지 않으며 잠재된 가능성을 찾습니다.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바람직한 모범을 보고 자란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젊은이를 만난다면 기쁘겠습니다.

자기의 신권을 존중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며, 한 가정의 장이 되고 영원한 가족으로 맺는 사슬의 한 토막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영적인 일을 기뻐하며 영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겠습니다.

큰 뜻과 출신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며 힘든 일을 할 수 있고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전은 남자의 의무를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

생존 경쟁 속에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일찍부터 책임감을 갖고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은 모든것을 돌봐 주는 어머니 곁에서 자신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을 기꺼이 맡아 들이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어머니는 누구나 때가 이르면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와 속삭임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 하지 않으며, 영의 인도에 따르며, 합당한 때에 간증하며, 자신의 남자로서의 힘을 그가 속한 사회를 위해 함께 나누는 자라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 / 폴 형제



드렛 제이 폴
뉴저지 쇼트 힐 스테이크 축복사

말일 성도의 한 아버지로서 옛날에 없었던 남녀간의 자유, 이혼율의 증가, 가정의 파탄을 주시해 볼 때 이러한 문제가 우리 자녀의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환경하에서 좋은 배필을 택한다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다섯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섯 아들의 배필을 택해야 한다면 저는 교회에서 성실하고 활동적인 자매를 찾겠습니다. 아마 이런 자매라면 성실하고 활동적인 말일성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춘 며느리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려 하는 모범적인 내조자의 자질이 결핍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말한 그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그녀를 모범적인 내조자에 가깝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아들과 며느리가 그들이 같은 신앙을 가졌으며 교육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 이외에도 취미나 관심이 일치한다면 서로 적응하며 화합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의욕입니다. 음악이나 다른 예술 혹은 수예나 요리에 대한 재능이나 기술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 이 예비신부가 100원의 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나의 한 아들을 위해서는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졌으며 따뜻함과 자애심을 가졌고 또 그 마음씨를 필요한 때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매를 며느리로 택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 딸을 찾겠습니다. 이해성이 있고 상냥하며 조심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기적이 아닌 여자라야 하겠습니다. 지적이며 영적이면 좋겠습니다. 과오가 없어야 하며 건강해야 하며 외관으로도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따라 제각기 뜻이 다른데 저의 경우는 미의 여왕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비신부는 남편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여자는 결혼할 남자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

결국 원하는 것은 내 아들의 아내는 우선 가정 주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녀는 집안 일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성의 자질은 그녀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품성입니다. 그녀의 주 사명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며 가정을 가꾸어나가려는 강한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녀 자신이 상당한 수준에까지 성숙해야 하며 동시에 어머니 되시는 분은 딸을 어머니에게 꼭 붙들어 맨 그 결속을 충분히 늦추는 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랑스러운 딸과 나의 아들이 서로 진실로 사랑하기를 바라며 그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워 이들이 주님의 신전에서 영원히 인봉되고자 하는 마음을 풀어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청춘의 낭만적인 사랑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들의 사랑은 주님의 위대한 목적인 불사 불멸과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완숙한 부부가 되는 첫 단계라는 것을 깨달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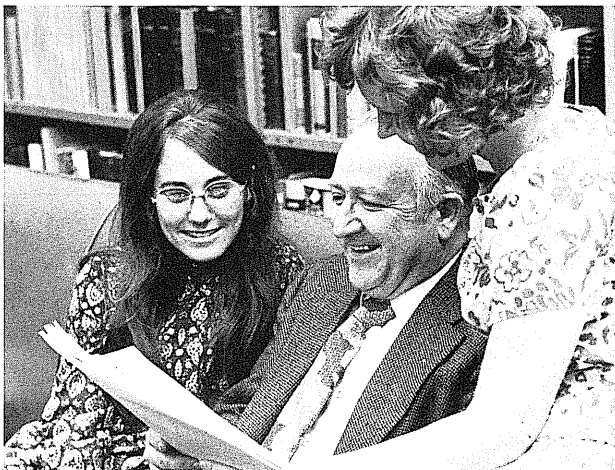
저는 이와 같이 성실한 물문의 젊은 여성이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해 왔습니다. 결혼 전의 교제가 영원하고 확실한 결혼 관계에 이르기 전에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시험 단계라고 생각하여 결혼 전의 깊은 관계까지를 그대로 보아 넘기려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각은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같은 이상적인 배필은 그같은 교제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나의 아들은 그들이 서로 훌륭한 배필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주님의 인도를 간구함으로써 더욱 굳은 기초 위에서 연애와 약혼과 결혼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만약 내 아들의 배필을 구한다면 자애롭고, 건강하고 총명한 착한 말일성도의 자매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여러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택한 배필이면 나는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신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 / 아링톤 형제



“로렌조 스노우 설교집에서 발췌 ‘그는 어떻게 물문이 되었나’, 청소년인스트락터, 제22권 (1887년 1월 15일) 22-23페이지.

엘리자 알 스노우 : 영원한 인간(솔트레이크시, 1957) 6페이지

베오날드 제이 아링톤
교회 역사 편찬 위원

오늘날 젊은이들이 지닌 기본적인 문제는 자아의식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젊은 이들은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소위 자아의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세계는 너무도 빨리 변하고 그래서 그들 자신도 너무 빨리 변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자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각 개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과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생명을 함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이룩하는 시간입니다. 자아의식은 신학적인 말로 바꾸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두째 침례 즉 불의 침례에 해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침례 즉 물의 침례와 불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 3:3-5) 우리는 대부분 여덟살이 되어 물의 침례를 받았고 그 하루 혹은 이틀 후에 성신을 받았읍니다. 우리들 중 거의 전부가 그 때 기적과 같은 어떤 변화를 느끼지도 못했으며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질만큼 성숙하지도 않았읍니다.

성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게 되는 것은 대개 15세에서 25세 사이입니다. 성신이 함께 하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성신이 함께 함을 진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성신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맥케이 대관장님은 그가 어렸을 때 성신이 함께 할 것을 기도하였더니 그가 자기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성신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까지 성신이 거의 의식할 수 없을만큼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곳에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또 그때에 우리는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받아들이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며 때로는 승영의 노래나 시를 짓게 되고 거의 예외 없이 지극히 높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자아의 정립과 간증과 두째 침례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와 같은 경험을 했으며 요셉 스미스도 팔마리아의 숲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고등학교 졸업반 때에나 대학일학년 혹은 선교사 생활을 시작한 처음 몇개월 동안에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경제사 박사 학위를 준비하던 시절 그 대학 도서관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참된 성신의 임재하심이었다면 우리가 받은 두번째 침례는 힐라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치 뜨거운 불로 가득 찬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힐5:45) 우리의 영의 샘은 마치 무거운 돌로 그 샘을 억지로 막았다가 다시 터놓았을 때처럼 넘쳐 흐를 것입니다.

타계하신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나, 일기나 자서전은 이성령의 침례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도였다가 나중에 대관장이 되신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도 이러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스노우 장로님은 22세 때에 물의 침례를 받은 후 성신을 받아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알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 7:17) 그러나 스노우 장

“저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비회원 친구가 성찬을 들어도 괜찮습니까?”

대답 / 파우스트형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보조

로님은 그러한 확신을 당장에 얻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저도 더불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일 후였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여 집을 떠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쩐지 불안하고 “형용할 수 없는 어두운 구름”에 쌓여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녁이면 은밀히 기도하기 위해 작은 숲으로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날따라 마음은 더욱 우울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나질 않았습니다.” “머리 위 하늘은 늦석와도 같이 보였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있어 머리 위에서 “비단 옷이 스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영이 내위에 임하여 내 온 몸을 감싸더니 내 머리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 내 정신과 영을 덮은 길고 어두운 구름이 찬란한 빛과 지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어떤 말로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성 신권의 회복 그리고 복음의 충만함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침례였습니다. 천국의 원리이며 요소인 성신에 실제로 완전히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그것은 물에의 침수에서 보다 더욱 더 내 온 몸의 마디 마디가 다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베풀었습니다. 스노우 장로님은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부와 영광보다 더욱 값진 것이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스노우 대관장님의 누님으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고 후에는 상호 부조회 회장을 지냈던 엘리자 자매님도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1835년 4월 5일에 저는 물몬의 한 장로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성령의 침례는 개울 물에서의 침례와 내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꼭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날 내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무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손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온 몸을 감싸고 발에까지 내려오는 무엇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록을 보면 자아를 찾고 성스러운 영과 접하는 이같은 두번째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부터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복음이 참되고 교회는 성스러운 조직이며 한 개인의 승영에 이르기 위한 힘은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으로 강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만약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확신이 있다면 이는 성신의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여 가르치시기를 성찬은 “나를 믿어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에게 나누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니삼18:5) 또 나의 홀린 피로서 “나의 이름으로 믿는 자 모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마 26:29 영감역)

성찬은 침례를 받을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이름과 뜻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을 예수님과 조화될 수 있는 의로운 생활로 이끌려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교회 회원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취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구도자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성찬을 들지 못하게 하여 불쾌한 기분을 갖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 오신 분들은 성찬을 든다는 것이 교회 회원을 상징하는 것이란 점을 알 것입니다. ㉞



로저 빌링스 기관을 돌아 나오는 공기는 다른 기관을 돌아 나오는 공기!

물은 바퀴를 돌린다

마가레트 엘리스

물과 공기의 오염이 온 세계가 당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증대되어 가는 위협임에는 틀림없다. 유명한 탐험가 토르 헤이델달씨도 대양의 한 중간이 오염된 것을 발견했다. (성도의 빗 1972년 9월호 12페이지 참조) 가솔린 기관은 공기 오염의 주 원천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정부와 제조업자들은 거액의 돈을 들여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새로운 기관과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브리감 영 대학교 출신인 로저 빌링스는 차량의 공기 공해의 실제적이

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한 연구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수소와 공기의 혼합 연료에다 마지막으로 물을 사용함으로써 공해 없는 연료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그는 믿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로저스가 발명한 수소 기관을 통해 나오는 공기는 공기가 기관으로 들어갈 때보다 더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로저는 최근에 마즈다 알엘스—그와 폭스바겐의 두 차로 실제로 시험해 보였다. 이 발명은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결심하여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연구해 온 결과이다.

로저는 이렇게 그 때를 회상한다. “저는 그 때까지 화학이나 물리에 대한 기본 교육도 받지 못했지요. 책에서 전극을 이용하여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리된다는 것을 읽은 후 수소가 공기 중에서 연소되면 물로 변한다는 것을 배웠지요” 그러나 그의 그 분야에서의 노력은 아직도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여러가지 작품으로 각종 과학 전람회에 참석하여 지식을 넓혔고 그가 가는 곳마다 상을 탔다. 고등학교 졸업반 때 로저는 수소 기관 연구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어느날 저녁에 기관이 동작하기 시작했다. 그 기관은 수소 연료로 20초간 동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기관을 완성하여 그해의 과학 전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1966년에는 수소로 동작하는 모형 비행기 기관을 고안하여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국제 과학 전람회에 출품해서 4위에 입상했다. 그러나 로저는 그때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연구는 중단되어야 했다. 기관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날도 우리는 구도자를 찾아 돌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에게 가서 교회에 대해 알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흥미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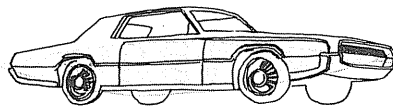


로저가 동료 학생에게 수소가 어떻게 해서 기화기에서 입자(혹은 연기)를 연소시키며 또 그것이 배연 기관을 통해 나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할 켈리암 제공)

과가 성공적이면 더 큰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과 수없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기계 기술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수소로 동작하는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였기 때문에 저의 실망은 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저는 그분의 생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소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험에서 실패도 많이 했지요. 그



가 훨씬 깨끗하다

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좀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제가 과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며 저의 계획을 듣고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나와 함께 수소 기관을 연구할 동반자와 나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실업가 한 사람과 함께 그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웃에는 국회 의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우리의 계획을 국회에 상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의외의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저의 사명

이 선교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만 전념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에 들어 오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성신을 느꼈으며 아마 언젠가는 교회에 입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로저는 말했다.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나서 저는 그것을 계속 연구했지만 학교도 가야 하고 동시에 직업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겼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 개발부에서 곧 저의 계획에 관심을 가졌고 제가 제안한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 포오드회사에 보냈으며 포오드회사는 그 연구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 결

만들까 하는 생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마다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영향력과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기화기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를 불러 가로 14인치 세로 15인치이고 두께가 8분의 1인치인 플라스틱을 만들곤 했지요. 이 플라스틱은 기화기의 부품입니다. 수소는 다른 기체와 잘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안에서 공기와 잘 섞이게 할 수 있으며

또 수소를 공기와 혼합하고 그 혼합된 기체를 엔진에 유입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이 플라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화기에는 제어 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내부의 기체 혼합 상태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그 제어 장치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 제어 장치를 잔디 깎는 기체에 부착하여 제가 동작시키면 기체 혼합 제어 상태를 보아 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열살짜리 동생에게 그 일을 시켰지요. 기도해야겠다고 느낄 때 우리의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저는 제가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는 대개 그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서 저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영감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기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플라스크를 무엇으로 덮어야 하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지퍼와 단추가 달린 무거운 방수 외투를 꺼내 플라스크 위에 씌웠습니다. 기관을 동작시키자 검은 연기가 일었습니다. 수소와 공기의 혼합 기체가 플라스크로 흘러 들어가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외투는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크 옆에 바싹 붙어 무릎을 꿇고 지켜보던 어린 동생과 저는 조금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신 이와 같은 경험은 수없이 많습니다.”

“말일성도 과학자는 연구도 성실하게 하지만 영감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 보다 큰 이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자가 어떤 것을 발견할 때에는 주님은 어떤 개념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과학자가 그것을 발견할 만큼 충분히 연구할 가치있는

사람이란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혹은 그 외의 주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그 과학자는 도움을 입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며 복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과학 분야에서 예언자 혹은 계시자가 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로저는 1972년 5월에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즈다와 폭스바겐 자동차로 자기 발명품을 시험해 보았다. 가솔린 연료 탱크와 연료 배관과 기화기는 기관에 물을 주입시키는 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는 수소 연료를 쓰는 차로 바꿀 수가 있다. 물과 공기의 혼합물이 실린더에 들어가면 다시 수소와 혼합하게 된다. 로저는 기관이나 기화기에서의 물이 부식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물은 기관을 통해 순환하며 기관을 식혀 주고 기압으로 인해 기관 밖으로 배출되지요. 기화기는 부식되지 않습니다. 연료 탱크나 연료 배관에 특수 도료를 바를 수도 있지요. 이와 같은 일은 현재 대부분의 차가 다 그렇듯이 일반적인 일이지요”라고 그는 말한다.

다음은 수소 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수소가 연소되면 그 부산물로는 순수한 수증기와 산화 질소 화합물 밖에 없다. 로저는 산화 질소의 배출 양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가솔린 기관에서 40/백만의 비율로 생성되는데 비해 연구와 기술적인 기관 조정으로 1/백만의 비율까지 줄일 수 있었다. 그 1/백만의 비율로 배출되는 화합물질마저도 로저의 기관내에서 접촉 반응 전환기를 지나는 동안 제거되어 진다.

“공기 속의 탄소 화합물과 일산화탄소(다른 차량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도 이 기관에 들어가면 산화되어 물

과 이산화 탄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염 물질의 오염도는 실제로 줄어 듭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또 “수소의 생산가는 개솔린 생산가와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수소는 원자료가 최고로 가동되고 있지 않을 때 그 원자료에서 1000립방 피트당 10센트의 값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소를 공급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을 택하면 그보다는 조금 높지만 거의 비슷한 값으로 수소를 얻을 수 있다.

수소 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소 연료 운반시의 위험 때문이다. 그러나 로저는 저온 고압 탱크를 반드시 차에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뉴욕에 있는 브룩 헤이븐 국립 연구소에서는 금속 수소화합물을 만들어 필요할 때 연료를 공급하고 또 차량이 멈춰 있을 때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로저는 지금 저명한 발명가이며 실업가이고, 리어 젯트 8트랙 스테레오, 자동차 라디오 및 비행기의 자동 조종기의 제작자인 윌리엄 리어씨와 함께 일하고 있다. 그들은 수소 기관을 거의 완성했으며 증기 자동차 제작에도 착수하고 있다.

로저는 그가 하는 일과 장래의 계획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연구 뒤에 숨은 주된 동기는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나의 간증은 과학을 잘 알며 또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위치에 내 자신을 올려 놓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배웠습니다. 첫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목표를 높게 세우고 마치 나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르침

버드 시 폴린 작



할머니는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서 교사의 부름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할머니가 일기를 쓰실 때에는 교사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가르칠 공과의 제목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을 가르친다”는 의미 심장한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할머니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얼마 전에 우리와 지금까지 오랫동안 친해 온 집으로부터 부쳐온 사진을 보니 할머니는 명랑하고 좀 장난기가 있어 보인다. 그녀가 일기를 쓴 지 5년이 지난 1904년에 가족과 함께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다. 그녀는 아주 멋들어진 검은 겹모자를 썼으며 삼각형 소매를 한 옷과 긴 치마를 입고 있다. 한쪽 끝에는 당시 여섯살이었던 아버지가 그날에 있을 기쁨을 기대하면서 미소를 띄고 있다.

나는 이와 대조되는 할머니의 상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 창백하고 위엄이 있어 보이는 소녀가 창가에서 꾸부리고 뜨개질을 하는 그 하나이고 또 다른 상은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 여인이며 석유 램프의 깜박이는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뒷벽에 펼쳐지게 하는 모습이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엘리스 어밀리어 켈들러 할머니에 대한 상을 이 사진 몇개에서 그려 볼 뿐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리는 마음의 상과 그녀가 그녀의 가족에게 계속 가르치던 공과 다시 말하면 그녀 생애에서 중요한 2년 간의 일기를 더욱 높이 평가한다.

(1) 검은이 그린 1830년대의 유행복을 입은 미국 미인의 전형.

1897년이다. 엘리스는 몇개월 전에 결혼하여 아기—나의 아버지—를 갖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조지 앤더슨 켈들러는 부름을 받아 캘리포니아주로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나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 부분에서 남편의 출발에 대한 기록을 하고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격려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더 없이 기뻐다. 멀리 떠나 북음을 전파할 만큼 가치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9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명랑했으며 집안 일과 가정을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다른 선교사를 도우기 위해 파티 초대권을 팔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빵 반죽을 만들어 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질 않았다: “그의 생각을 했다. 그이는 지금 어디제실까. 몸은 건강하신지. 외롭다고 느끼니 더 한층 보고 싶다.

고독 이외에도 그녀에게는 또 문제가 있었다. 남편의 선교를 위한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었다. “내가 조금이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기는 했다. 지난 밤에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간구했다. 그래서 오늘은 옷 두벌을 만들 일감을 얻게 되었다. 우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계를 위한 일과 교회의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나는 매일 밤 조금씩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매리 에이 리버모어의 약전을 공부하고 있다.”

마음이 우울한 때도 있었다: “집에 돌아 왔을 때 집배원이 다녀가면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르침

서 나에게 편지를 주지 않고 가면 나의 실망은 크다. 그러나 이런 때도 있다. “1897년 10월 21일은 중요한 날이다. 제3 와드(오그덴)의 청녀 상호향사회가 재조직 되었으며 엘리스 캔들러는 회장단의 보좌가 된 날이다.

그녀는 이런 걱정을 자주했다. “침대나 제대로 있는지. 먹는 것은 어떤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건강은 어떤지. 걱정이 된다. 나는 하루 종일 그이를 위해 기도하며 밤에는 그의 꿈을 꾸다.”

그녀도 녀적지 못했지만 더 가난한 사람도 많았다. : “오후에는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방문했다.”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왔다. : “하루 종일 뜨개질을 했다”고 그녀는 할일이 많았지만 공화당에서도 활동했다. 그리고 사회 활동에도 관심이 컸다. :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설탕 공장 설립에 대한 토의에도 참여했다. 그곳에서만 1만불을 모금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편지를 받고 있었으며 부부가 떨어져서 처음으로 맞는 성탄절에 남편은 “조개 껍질 큰 것 두개와 작은 것 여러개, 장갑 한벌과 장미 다섯 송이를 보냈다.”

엘리스는 남편에게 “편지지 한상자와 손수건 여러개를 보낼 수 있었다”


1898년 3월 4일의 중대한 일에 대해서도 그녀는 담담하다. : “오후 2시 20분 전에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무게는 9파운드였다.”

그녀 일기는 평소에 늘 하는 일로 대부분 채워진다. : 교회 집회와 가족 소풍으로도 생계를 위한 일은 늘 방해 받아왔다. 그녀는 신앙으로 고독과 생활의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1898년 새해를 맞이하

면서 글을 쓰고픈 영감을 받았다. :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다. 지금 시각은 1898년의 첫날 오전 1시. 금년도 지난해 처럼 밝은 해이기를 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일기장의 종이처럼 내 생애가 깨끗한 것이기를 기원한다. 나의 생활이 겸손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나에게 힘을 주어 내가 매일 저지르는 잘못을 극복하고 그리하여 나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나의 빛이 빛날 것을 기원한다.

일기장을 매운 잉크색은 희미해져 있다. 이 낡은 일기장은 뚜껑이 반쯤 떨어져 덜렁거리고 있다. 나는 이 일기장을 같은 시절에 다른 친척이 남긴 값진 물건과 비교해 본다. 하빌란드 도자기²⁾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접시를 가진 것을 감사하며 그 접시가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빛을 잃지 않은 것을 신기하게 생각한다. 접시의 빛나고 정교한 표면은 어째서 그렇게 아름다운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겸손하신 엘리스 할머니가 남기신 살아 있는 이 선물에 대해 감사한다. 할머니는 세련된 문장가도 아니고 세상에 알려진 사람도 아니지만 일기를 통해서 그녀의 품성이었던 풍요함, 인내, 용기, 그리고 신앙을 배우고 있다.”

풀린 자매, 가정 주부 베아이의 어머니. 토랜스(캘리포니아) 스테이크 팔로스 버즈 와드 지역에 살며 스테이크 상향회 현임 역원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2) 불란서의 하빌란드란 사람이 만든 도자기.



데이비드 오 맥케이 영혼의 가치

레온 알 하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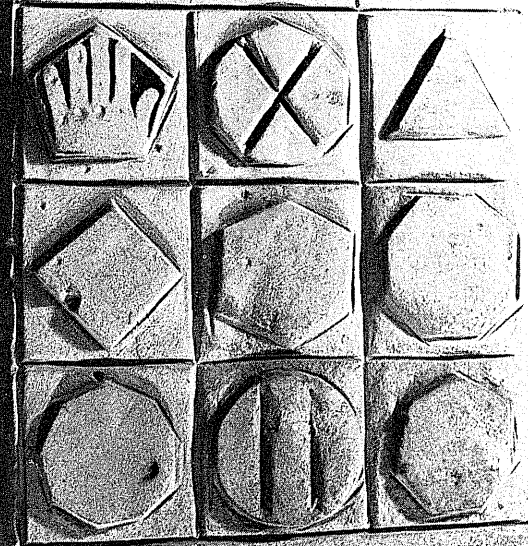
오늘날의 사람들은 탁월함, 성실함, 개인의 영혼의 가치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에게는 그의 고귀한 본능에 의미와 방향을 더해 준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유타주 헨츠빌의 아버지의 농장에서 보내며 성장했고 부모로부터는 주님과 주님의 사업이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으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본보기를 통해 배웠다. 그가 여덟살이 되던 해에 누나 둘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 얼마 후에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에서 2년간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맥케이 자매에게는 열흘 후면 새 아기가 탄생할 예정이며 농장도 돌볼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 어린 식구도 길러야 했다. 그러나 교회 일이 먼저였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시험이었고, 실천에 대한 시험이었다. 맥케이 장로는 말등에 올라 떠나면서 어린 아들을 들어 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데이비드야 어머니와 가족을 잘 돌봐야 한다.” 그 날부터 어린 데이비드는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듯 했다.

맥케이 대판장님은 어린 시절의 교훈을 생생하게 회상하신다: 십일조를 현물로 바치던 시절에 아버지께서 전초가 년린 들에서 두 소년에게 주신 교훈에 대해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번째로 전초를 가지러 갔읍니다. 아홉번째까지 실어낸 곳에는 바랭이 풀이 있었다. 우리가

WHAT-E'ER THOU ART.
ACT WELL THY PART.



JOHN ALLAN ARCHITECT 1890

클이 새겨진 돌 : “네가 무엇하는 사람이든지 네 할바를 다하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언제나 인자했으며 남용에 민감한 분이였다.



“대학 시절에 풋볼 선수였으며 무도회 악단에서는 피아노 반주자였다. 졸업반 때에는 학년 대표로 선출되었다.”



막 실으려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건 안되겠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겠어”라는 소리로 우리를 제지하셨습니다. 높은 데로 가보니 그곳에는 더 좋은 풀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그가 바로 나였습니다.) “여기 있는 건초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겠어요!”

“그건 안된다. 데이비드야 이것은 십일조를 바칠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부족하지”

그는 부모에게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십대의 시골 소년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실재와 그분의 사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생활을 할 때 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얻고 싶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멋있는 분이였다.

“소년 시절의 어느 날 나는 소를 찾아 돌아 다니다가 험준한 산 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일단 발을 멈춰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시련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겼습니다. 말고 뼈를 말 머리에 던져 두고 나는 말에서 내려 마가목이 우거진 숲 아래에



성도의 빛 1973년 4월호

서 하나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것같이 나에게도 진리의 계시를 주실 것을 기원했습니다. 그때의 나의 기도는 한 어린 소년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을 다하여 간절하고 성실하게 드린 기도였다고 확신합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는 다시 일어나 나의 충성스러운 조랑말의 고삐를 풀고 안장에 올랐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 오면서 혼자 속삭이던 말이 생각 났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도 나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어, 내가 만약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충실하다면 기도하기 전의 나와 기도 후의 내가 조금도 달라서는 안되지”

그는 큰 교훈을 얻었다. 한 어린 말일성도 소년이 주님께 단순히 간구만을 하여 신앙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간구한다면 그같은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는 계속 농장에서 일을 했으며 뒤에 유타 주립 대학교엘 갔다. 대학 시절에는 풋볼을 했으며 무도회 악단의 피아노 반주자였고 졸업반 때에는 학년 대표에 선출되었다. 졸업이 가까와 오자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졸업장을 받기 직전 어느날 윌포드 우드럼 대관장님으로부터 영국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라는 편지가 날아왔다. 중대한 문제였다.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직장과 선교사의 둘을 놓고 고민하였다. 그의 최종 결정은 그의 계획을 물리치고 부름을 받아 들이는 것이었다.

그의 첫 임지인 스코틀란드에서의 첫 몇개월은 어려운 시기였다. 그곳 주민들은 선교사들을 반겨하지 않았다. 그는 그 어려운 당시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당시 나는 용기를 잃고 있었으

며 마음은 고향의 그리움으로 차 있었습니다. 한번은 한 스코틀란드 여인에게 소책자를 주자 그녀는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거예요. 당신들에게 넘어가는 여자는 없을걸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의 여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물몬에 대한 이러한 나쁜 감정은 나의 용기를 꺾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그렇게 오해하니 슬픈 일이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나는 학교를 사랑했고 젊은이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젊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너가 그곳 주민들의 증오와 편견을 보았을 때 나는 슬펐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중의 하나인 퍼터 지 존스톤과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다호 출신으로 사회 경험이 많은 부자였으며 아름다운 것이면 어느 것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동반자가 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끝에 나는 나의 오른 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의 현관 위에는 돌이 하나 있었는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나는 존스톤 장로에게 ‘저게 무엇인지 가서 보고 올께’라고 말하고 그 집으로 가는데 자갈 길을 따라 한 반쯤 가자 그 돌에 새긴 좌우명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무엇하는 사람이든지 네 할 바를 다하라’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유숙할 곳을 찾기 위해 마을로 걸어 들어오면서 나는 그 좌우명을 존스톤 장로에게 거듭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혹은 내 안에 있는 영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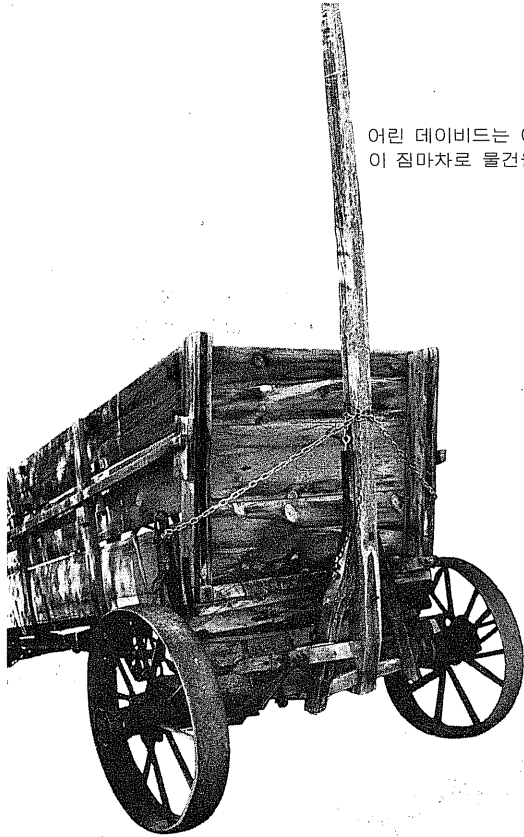


더우기 너는 주님을 대리하여 이곳에 왔다. 너는 교회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오전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광을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교훈과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즐거운 관광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호수의 여인’을 배운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관광 기분에 쉽게 젖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사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가 숙소를 찾았을 때 나는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을 나에게 주는 좌우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데이비드는 아버지가 일하는 농장에서 이 짐마차로 물건을 날랐다.



1900년 경에 친구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청년 데이비드는 검정색 코트를 입고 뒷 줄에 앉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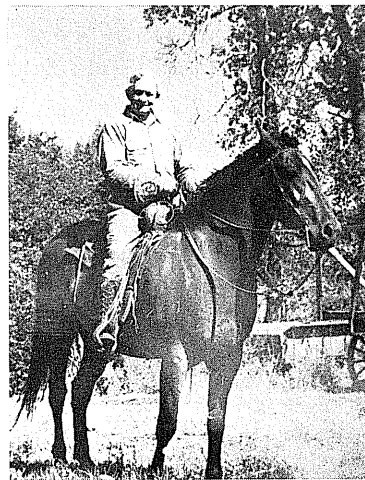
그 순간 이후부터 우리는 스코틀란드에 온 선교사로서 우리의 할 바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란드에서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자 대학 시절의 애인과 결혼했다. 1901년 1월의 어느 추운 아침 그와 엠마 레이 리그즈 자매는 마차를 타고 솔트레이크 신전에 당도했다. 그곳에서 주님 앞에 성약을 맺고 결혼했다. 그들 사이에 맺은 사랑과 존경에 대한 약속은 너무도 훌륭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60여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거처하던 유타 호텔의 방을 신방이라 부르고 있다. “영원히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69년이 신혼 기간으로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라고 그들은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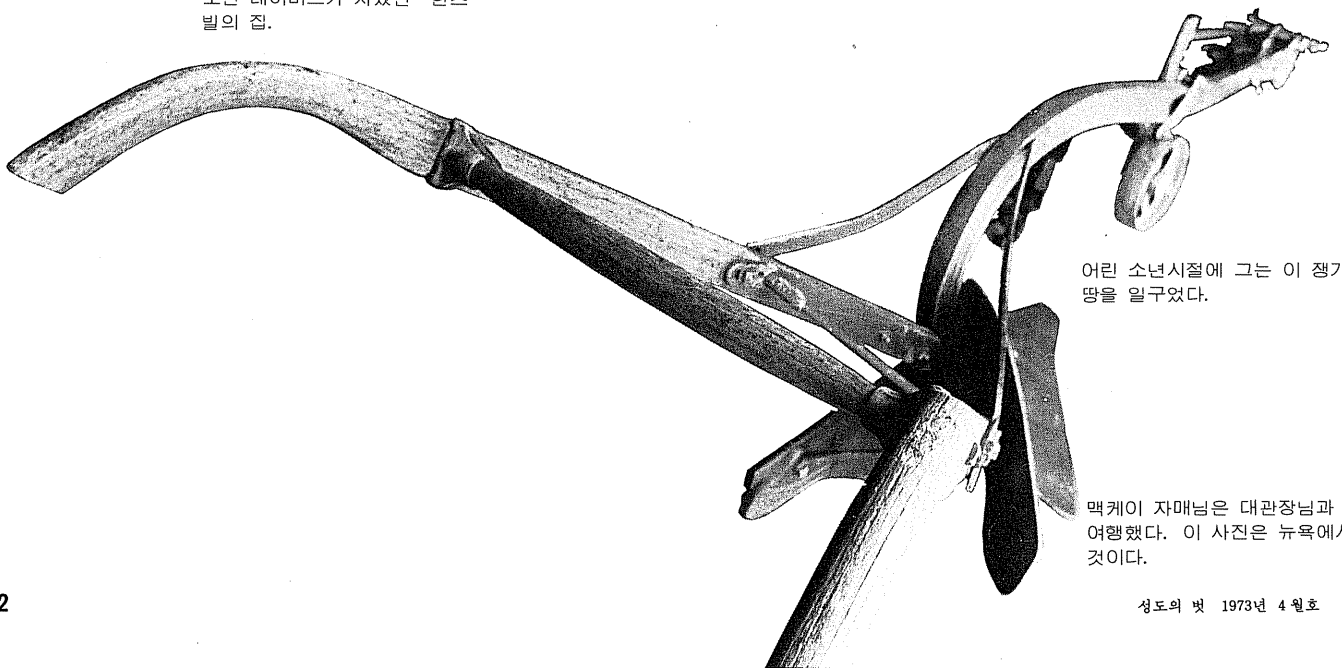
그리고 그는 교회가 운영하는 유타주, 오그넨에 있는 웨버 학원의 교사로 취임했다가 교장이 되었으며 또 교회에서는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다가 1916년 31세의 젊은 나이로 12사도의 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 교회 교육 위원, 구주 선교부장을 역임하면서 큰 능력과 정력을 보였다.



소년 데이비드가 자랐던 한츠빌의 집.



그는 말 애호가였다. 1944년 촬영.



어린 소년시절에 그는 이 쟁기로 넓은 땅을 일구었다.

맥케이 자매님은 대관장님과 자주 함께 여행했다. 이 사진은 뉴욕에서 촬영한 것이다.

성도의 빛 1973년 4월호

61세 때에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보좌로 택함을 받았으며 또한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의 보좌로 봉사하였다.

1951년 4월 대회에서 78세의 데이비드 오만 맥케이 형제는 신전 광장에 있는 태버나클에 서서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막 성도들로부터 예언자이며 선전자이며 계시자로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총관리 역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지켜 주시며 우리가 알고 있는 약점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업이 발전해 나아가는 것만을 지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원들을 지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과 신앙과 그리고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반대적인 비난이 아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도울 수가 없다면 기도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온 교회의 회원들의 기도의 힘이 어제 내가 나의 옛 고향의 이웃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가 소의 것

을 짜고 있는데 헛간에 둔 라디오에서 스미스 대관장님의 타계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그 소식이 그의 옛 고향 친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헛간에서 나와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초라한 집에서 가족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10만 가정, 20만 가정, 50만 가정이 갖도록 늘립시다. 그리고 단결과 기도 안에 있는 힘과 교회 속에 있는 교회를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재임 기간 동안에 전과 마찬가지로 실로 큰 업적을 남겼다. 맥케이 대관장님과 자매님은 여러 나라를 방문하시면서 회원과 비회원을 축복하셨다. 많은 나라에서 신전이 건립되었고 선교 활동이 번창하였고 교회 회원도 크게 늘어났다. 진보의 정신이 온 사람의 마음에 충만했으며 물몬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으며 그 사랑은 교회의 회원에게 기쁨의 전율을 느끼게 했다. 어느날 어느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이 약속대로 그를 만나러 왔는데 마침 그는 동생 토마스 이 맥케이의 임종이 임박하여 급히 병원으로 간 후였다. 다음 일요일 그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주일학교의 교실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교사가 문을 여니 거기에는 맥케이 대관장님이 서 계셨다. 그는 그 반원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까지 왔으며 지난 주일의 실례에 대해 사과했다.

왜 그날 사무실에서 기다리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하고 교사와 그리고 어린이들과 하나 하나 악수를 했다. “대관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맥케이 대관장님은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그분의 자상하신 사랑은

맥케이 장로가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던 1923년에 촬영한 사진이다. 어린 아이는 그의 아들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큰 교훈이다. 스위스와 영국의 신진 대지를 헌납키 위해 유럽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는 영국에서(자필 서명을 받으려는)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인 적이 있다. 출의 첫번에 서 있는 한 9세쯤되는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동반한 대관장님의 아들에게 “맥케이 대관장님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피곤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소녀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맥케이 대관장님은 그 이야기를 넘겨 듣고 그 소녀에게 농담으로 “네가 읽을 수 있을 만큼 깨끗이 쓸 수 있을 것 같니?”라고 물었다. 그 소녀는 그것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잘 몰라 당황하였다. 그때 한 수행원이 긴급한 질문을 해서 화제가 그쪽으로 쏠려 몇분이 흘러갔다. 대관장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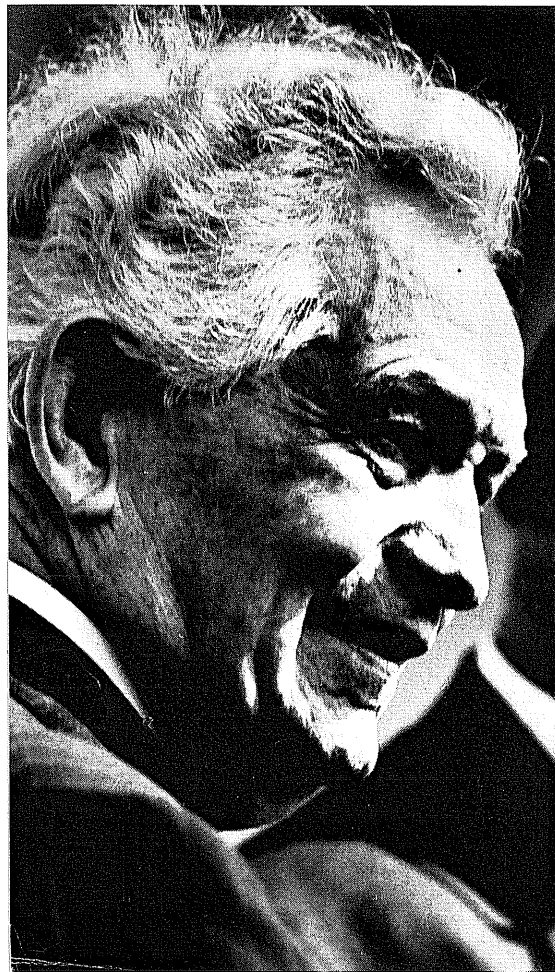
다시 책상에 와서 서명을 하려는데 그 소녀는 보이지를 않았다.

“아버지께서 저처럼 언짢아 하시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 파란 옷을 입은 소녀를 찾아 주시겠습니까?”라고 아들이 말했다. 지부장과 선교부장이 동원이 되어 그 푸른 옷을 입은 소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한 선교사가 그녀가 누구인지 알것 같아 대관장님께 그날 밤에 전화를 해서 대관장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분부를 받았다: “그 소녀에게 만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른다고 전해 주시오. 나는 지부장님에게 그 소녀의 책을 솔트레이크로 부쳐 달라는 부탁을 하였오. 그 책에 내가 서명을 해서 직접 그 소녀에게 우편으로 부치겠오” 대관장님은 그렇게 했다.

한 영혼의 가치! 맥케이 대관장님은 모든 생물은 존경과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짐승이나 새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그는 헨츠빌 농장으로 가서 말을 타고 친지를 방문하기를 즐겨했다. 몇년 전에 농장에 도둑이 들어 대관장님의 말 안장을 훔쳐간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 새 안장은 언제든지 안장 집에 넣어 쇠

를 채웠다. 어느날 맥케이 대관장님의 여동생들이 농장을 둘러 보는데 안장 집의 창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 그 문을 닫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관장님은 “새동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열어 놓았지. 어미 새가 새끼들에게 모이를 물어 날라 주려던 그 통로 밖에 없지. 내가 다시 가 봐야겠어”라고 말했다. 그는 가서 다시 창을 열어 놓고 왔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생각한대로 였어. 새 한마리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어미 새는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야단이었어”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을 때 맥케이 장로는 시저란 이름으로 부르는 꿩 한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시저가 우리를 부시고 밖으로 나왔다. 그 우리를 고치기 전에 우선 시저를 잡아 닭장에 넣어 두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깜박잊고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날 밤 두시에 맥케이 대관장님 가족은 요란한 전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 보니 슬픈 전보의 전갈이었다. “시저는 닭장에 있다. 물 주라.”



성도의 빛 1973년 4월호

의 목표가 그 기관을 동작시키는 것이 있던 바와 같이 그 목표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 쌓은 실력도 없었고 훈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저는 그 목표를 세워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워 놓고 이루지 못한 목표가 많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만약 노력하지 않았다면 극복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과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는 공기 오염 조정 연구 재단을 설립해서 비영리로 연구 봉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많은 말일성도 과학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 겸손을 배웠습니다. 가치있는 위대한 것들을 성취한 사람들은 참으로 겸손하고 진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자신을 믿는 신념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우리는 되돌이켜 왜 그런 목표를 설정했는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뒤에 누가 계시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린 결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저의 수소 연료 폭스바겐이 최근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 도시 자동차 설계 대회 공해 방지 분야에서 1위를 하였다.

그의 차는 750점 만점에 709점을 얻음으로써 연방 표준을 훨씬 넘었다. 유씨엘에이1)에서 만든 차가 2위를 했는데 그 점수는 546점에 불과했다.

63개 대학교로부터 2000명이 넘는 학생이 그 대회에 참가했다. 채점 기준은 안전, 소비자 가격, 동작상태, 충돌 사고 시의 저항성 및 배기 기체의 깨끗한 정도이었다. ㉔

(1) UCLA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스 분교

맥케이 대관장님은 고상함과 위엄을 지니고 계시며 그가 봉사한 구세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다. 그의 언어나 행동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그의 복음을 통하여 닦여진 인품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앉아 있는 모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이야기는 맥케이 대관장님이 유럽 방문을 마치고 돌아 오시는 것을 본 어느 사람의 말이다: “나는 맥케이 대관장님이 유럽에서 돌아 오실 때 뉴욕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촬영 준비는 완료되었지만 정규 사진사가 올 수 없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프레스사에서는 고심 끝에 뉴욕에서 거칠고 어려운 일에 이름이 있는 범죄 사진사를 기용하기로 했다. 그는 공항에 나가 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깊어진 후에 그는 사진을 한 뭉치나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그는 두 장만 촬영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

다. 사장은 즉석에서 그를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어디에다 쓸려고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시간을 허비했는가?’

그 사진사는 아주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허비한 사진재료의 값은 자기가 지불하겠으며 허비한 시간에 대한 감봉 조치도 기꺼이 받아 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문제에 대해 신경이 과민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부사장이 그를 불러 자초지종을 듣고자 했을 때 그 범죄 사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는 저에게 구약성경 귀절을 읽어 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예언자는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하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예언자를 발견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맥케이 대관장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시는 분이시며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㉔

데이비드 오 맥케이 약력 (1873-1970)

1873	연령	
9월8일	-	유타주 헨츠빌에서 출생
1897	24	유타 주립 대학교 졸업. 졸업반 대표로 답사를 읽음.
1897-99	24-26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
1899	26	웨버 주립 학원의 교사로 취임.
1901	27	엠마 레이 리그즈 자매와 결혼
1906	32	사도로 성임됨. 주일학교 회장단 제 2 보좌
1917	44	“고대 사도들”이란 첫 저서 저술
1918-34	45-66	본부 주일학교 회장
1919-21	46-48	세계 각국으로 선교 여행을 함
1922-24	49-51	유럽 선교부장
1934-51	61-78	대관장단 제2보좌
1951	78	대관장으로 지지받음
1955	82	스위스 신전 헌납
1956	83	로스앤젤리스 신전 헌납
1958	85	뉴질랜드 신전, 뉴질랜드 교회 대학, 런던 신전, 하와이 교회 대학 헌납
1961	88	교회 혐의 활동 시작
1964	91	오클랜드 신전 헌납
1970		
1월 18	96	서거

